

함께가는 여성

2007.7-8 www.womenlink.or.kr

연재기획

행복찾기

민우역사기행

민우ing

시청자들의 힘이 절실하다!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가능성과 우려

스포츠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쟁점과 현안

검은집, 해부학교실, 므이...그리고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상력이 필요한 때





터질듯이 심장이 뛰고,
온몸이 땀에 젖는다.
빨강계 달아오른 얼굴로
크게 웃는 웃음이 더 없이 상쾌하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들춰진다고?
그러라지. 나는 지금
자유롭고, 또 아름답다.

2007년 7·8월 진행중인 민우농구교실 '자신만만'



02 민우ing

02 시청자들의 힘이 절실하다 _ 윤정주

03 비정규직법, 상상을 멈추게 하는 거짓말 _ 신기루

06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가능성과 우려 _ 여진 · 다라

08 스포츠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_ 박봉

10 민우칼럼 창 ● 이중적 성문화의 극복과 자율적 성영역의 확대 _ 조희연

12 민우스케치

13 연재기획 I ● 행복찾기

13 행복찾기 _ 로미오, 주설령, 이화영, 버사, 홍미용, 소다, 이오

19 맑은 피가 행복이다 _ 유기성

22 연재기획 II ●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를 읽고... _ 강문순

23 연재기획 III ● 민우역사기행 - 성희롱 소송, 그 역사적 장정에 함께하다 _ 이수연

27 쟁점과 현안

27 검은집, 해부학교실, 그이...그리고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_ 봉달

30 상상력이 필요한 때 _ 따우

32 문화산책 - 쿼터퍼레이드 ● 난 소중한니까요 난 내가 자랑스러워요_ 들통

34 평등 사무실에서 ● 임신이 상근활동에 미치는 영향 _ 나우

36 모람풍경 ● 고정희 기행을 다녀와서 _ 히로

38 생협이야기 ● 잘 늙어가기 _ 이서연

40 국제통산원 ● '미국사회포럼'에서 울려 퍼진 여성노동자의 함성,
"해가 뜨면, 우리는 일어나리라!" _ 박혜정

43 모람활동

43 [접속 해외사이트 : 그들도 우리처럼] 요그아카르타 원칙이란? _ 바닥

44 [세여소의 말걸기] 아이들 _ 누에

45 '멋진 페미니스트 되기 프로젝트' 제2차 새모람을 소개합니다~!!

46 민우알림

46 지부소식

48 독자마당



‘나쁜프로그램’ 개선활동

시청자들의 힘이 절실하다!

윤정주 ●

#1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각 국 남성들 앞에서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추고 다리를 벌이거나 가슴을 보여준다.

#2 남성들 앞에 아한 속옷을 입은 여성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어느 속옷을 입은 여성이 남성들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지 관찰한다.

위의 #1과 #2는 얼핏 보면 포르노비디오를 연상시키지만 사실 이 두 장면은 현재 케이블 및 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밖에도 유료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명목 하에 비키니 입은 여성의 가슴, 배, 허벅지 등에 떡, 우유, 암체공 등을 떨어뜨려 어느 부위가 더 탄력있는지 실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림싸롱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입는 속칭 ‘홀복’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면서 팬티만 입은 여성을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이 여성의 온 몸을 구석구석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유료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국내제작사(국내PP)들의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은 여성의 몸을 단지 남성들의 성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도구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연자가 장애인에게 ‘병신’이라고 욕을 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거리낌 없이 무시하기도 한다. 때문에 올 7월,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에서는 유료방송을 모니터 하여 ‘나쁜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YTNSTAR <그 속이 알고 싶다>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유료방송에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유료방송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적은 인력의 모니터분과원들만의 힘으로는 지금 방송되고 있는 수백 개 프로그램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우회 회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신이 본 프로그램 중 여성이 성적도구화 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미디어운동본부(02-734-1046)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 시청자의 힘만이 ‘나쁜프로그램’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 **▶**

윤정주 ● 여름이 잘 어울리는 그녀



비정규직 법, 상상을 멈추게 하는 거짓말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

신기루 ●

7월 1일, 평범한 어떤 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이 세 가지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해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불리고 노동자들에 의해 '비정규직 해고법', '비정규직차별확산법'으로 불리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을 전후해 7월 1일은 하나의 경계가 되었다.

사용자 대표 단체 경총은 '인력관리체크포인트'라는 보기 좋고 읽기 좋은 법안 설명서를 펴내 이 법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자세를 설파했다. 노동부에서는 지금도 경품 당첨자가 발표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바로 알기' 사이트를 통해 법안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빠르게, 상당히 '신선한' 방식으로 '형식상' 정규직화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법 시행을 기념하여 노동부 직원과 이상수 장관 등은 상징적으로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시루떡을 자르고 가두행진을 하기도 했다.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영 위기든 국가의 위기든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임금이 깎이고 해고되는 대상이므로, 비정규직 법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는 여성노동계의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법이 만들어낼 정세에 개입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은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와 「비정규직 차별 집중상담」을 진행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여성노동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상황을 체크해 보고, 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활용해 보자는 취지도 있었다. 참여게시판도 만들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인구가 800만이라는 데 비정규직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800만의 상상'을 통해 알아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야심찬 게시판은 알만한

몇 사람이 주고받은 글들로 채워지고 ‘파리 날리는’ 상상 게시판이 되고 말았다. 이런 지경에 이른 데까지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전체를 풀거나 논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상반기에 접수된 비정규직 상담은 49건이었다. 전체 상담의 28.2%를 차지하고 있으니 상당히 높은 셈이다.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18건, 성차별 해고 및 근로조건 차별 상담이 14건,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의 상담이 8건이었다. 법 시행을 전후해 상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든지 하는 확연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한 20대 여성노동자 ㄱ씨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를 했다가, 한 달이 지나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해야 했다.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쓰는 계약서일 뿐이라고 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4년간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한 ㄱ씨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동료 10명과 함께 계약해지 됐다. 회사에서는 한 달을 쉬고 다시 나오라면서 무기계약, 파견, 2년 계약 중에 하나를 고르자고 했다. ㄱ씨는 10년을 일한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동안 아무 의미도 없었던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ㄱ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협에서 창구텔러직 일을 시작했다. 13째 근무할 무렵 IMF구제금융을 맞아 남편대신 명

예퇴직을 해야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똑같은 일을 하는 계약직이 됐다. 그리고 7년 동안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서 일했다.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남성노동자들은 경제사업장 등으로 전직하여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창구텔러직 여성노동자 전원은 모두 계약 해지됐다. ㄱ씨는 한부모 가장이 된 후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기 위해 단시간 노동자로 취업했다.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줄 알았던 직장은 오전근무로 시간이 바뀌기 일쑤고 수당 없는 초과근로도 자주했다. 전화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일을 해야 했고 남성 상사들의 불쾌한 시선과 언어폭력, 무시에 시달려야 했다. 제 날짜에 임금을 받는 정규직에 비해 언제 임금이 나올지 몰랐다. 여전히 비정규직이어서, 여성이어서 받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었다. 법이 일말의 효과라도 발휘했나 싶을 정도였다.

비정규직 법 시행 때문에 몇 가지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늘었다. 법 시행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법이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차별금지 규정의 회피 수단으로 분리직군제, 하위직급 신설, 차별 채용·배치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직급외에 최하위 직급을 신설하여 배치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우리은행에서 창의적으로 도입하여 정부와 타 기업에 훌륭한 응용 예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직무급제는 임금 차와 승진 제한 등 차별을 존속시킨다. 분리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여성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성별분업의 두터운 벽을 인정하는 현 상황에서
분리직군제, 하위직급신설은 성차별을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또한 차별진정 제도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다.
성별,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은 직무상 차이로 포장되는 것이다.

성별분업의 두터운 벽을 인정하는 현 상황에서 분리
직군제, 하위직급신설은 성차별을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또한 차별진정 제도를 희석시키는 방식으
로 기능할 것이다. 성별,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은 직
무상 차이로 포장되는 것이다.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 법률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온 바 있다. 6월 3
일 노동부가 펴낸 차별시정안내서와 6월 18일 발표
된 시행령은 차별을 시정을 하기에는 험겁고 노동자
가 이용하기에 복잡한 것이 차별시정제도라는 점을
드러냈다. 시행령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종사
하는 사무직, 유통, 판매직에서 파견직은 확대되었고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람은 너무 희귀해
구경나게 생겼다.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잠잠함이 불안하던 그 즈음에
KTX 새마을 승무원 노동조합은 무기한 단식 농성
에 들어갔고 이랜드 일반노동조합은 매장을 점거했
다. 7월 1일이 시행이라면 설마 6월 30일까지만 일
하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뻥히 보이는 뻥뻥한 해고
를 할 것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현재까지 1,000명을 해고했는
데, 시행령 전날인 6월 30일 뉴코아에서 300명을 정

리해고 했다. 영화 보러 가거나 피죤, 슬리퍼를 사던
그 홈에버는 파란 옷을 입은 계산원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이 됐다.

비정규직 관련 법은 여성노동자의 시선, 관점, 이해,
요구를 담은 법이었나? 혹자는 '2년 후 정규직전환'
과 '차별시정제도' 라는 두 개의 장점에 희망적 시선
을 보내며 관리감독만 잘 해낼 수 있다면 이 법이 유
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말도 했다. 7월 1일이
지난 지금은 이 물음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별과 불안은 인간을 파괴한다. 차별과 불안 중에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내는
노력이 남은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상담이라
칭할 것도 없이, 기간을 정할 것도 없이 찾아 바꾸기
의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 같다. **앎**

신기루 ● 미록♡♡♡ 농부가 좋아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7년 6월 4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목직발전분동특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가능성과 우려

여진 · 다라 ●

2005년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된 호주제를 대신하여 2008년부터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4월 27일, 국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드디어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개인정보의 편제 방식에 있다. 호적법에서는 일정 지역에 본적을 정한 가부장적 호주를 기준으로 그 가족의 구성과 내력을 기록하였다(때문에 혼인 또는 이혼한 여성의 경우 아버지, 남편(시아버지)의 호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새로운 법률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기록부를 가지고 국적 및 가족관계 등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1인1적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호주제 하에서는 하나의 기록부인 호적등본에 모든 개인의 정보와 가족의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 유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증명 목적에 따라 5개의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로 분류하여 발급한다. 회사나 공공기관에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하거나 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새 제도 하에서는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남의 혼인·이혼경력,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입양 내용 등을 타인이 맘대로 볼 수 있다니..--:).

새 신분등록제도에서의 변화 중 주목할 것 또 하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 시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쓰기로 부부가 합의하고 출생신고 시 한 번 더 신고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자녀들의 성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하니 첫째는 엄마 성, 둘째는 아빠 성 붙이는 재밌는 상상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호주제의 극심한 성차별성과 비인권적 문제점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이 법은 여전히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1인1적제를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법률명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것은 이 법의 가장 큰 한계이며 아쉬움이다. 이는 호주제 폐지라는 커다란 변화에 불안을 느낄 국민정서를 고려한 법률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본 법률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신분등록제임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우선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개인의 신분을 가족관계안에 묶어 두는 시각을 견지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개인의 신분 증명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않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고,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증명서에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분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지점이다.^{주1)} 개인 신분의 변동사항이 일반신분사항이라는 항목에 모두 기재되고, 증명 당시 신분상태와 상관없는 과거의 변동사항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개명을 했거나, 성전환을 했거나, 국적이 변화되었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원치 않아도, 필요하지 않아도 모두 드러나게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나 재혼 사항 등의 변동내용이 기록되어있어 이를 알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사적인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성변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극심한 사회에서, 직장을 구할 때 성변환 사실이 드러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

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경우 변동내용을 삭제하고 발급하는 등 시행규칙(법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에서 제정된 법률의 한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증명서에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도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신분등록부에는 개인의 모든 신분사항, 변동사항이 집적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관리'에만 집중하면 개인에 대한 통제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다. 개인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 **㉞**

여진 · 다라 ●

기본증명서 예시

등록기준지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곡리 1번지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00호				
구분	성 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이철수(李鐵水)	1968년 12월 31일	681231-1000000	남	全州
일반신분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 생	[출생장소] 군산시 나운동 20번지 [신고인] 부	[신고일] 1968년 12월 31일 [신고관서] 군산시			
국 적 회 복					
개 명					

1) 민우회가 함께 활동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004년부터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를 만들어내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신분사항기록부와 신분변동사항인 변동부를 분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성폭력 사건

스포츠하는 ‘여성’ 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박봉 ●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났다. 4월 26일 우리은행측은 박 감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하였다고 밝혔고, 박 감독은 5월 30일 구속수감 되었다. 그리고 6월 29일 1차 공판이 있었다.

박 감독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피해선수와 박 감독 사퇴 이후 신임감독 선임과정에서 성차별로 인해 채용탈락 되었음을 제기한 박찬숙 농구인, 두 여성의 용기로 폭로된 스포츠계의 성폭력과 성차별은 6월 27일 민우회와 문화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사실 나는 스포츠에 그닥 관심이 없다. 소위 성별차이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체육, 운동의 경험, 접근성, 비격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원하지 않아도 몸 좋다는 이유로 체육부장이 되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선수제의를 받았던 나로서야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도 즐기는 것이라면 춤이든, 노래든, 운동이든 몽땅 어색한 천성과 승부근성이나 집요함과는 거리가 먼 널널한 성격이 한 몫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잔지 여잔지 프로농구단이 있다는 얘긴 들어본 거 같은데 선수 한 명 알지 못하고 프로농구단 이름은 당연히 들어본 적도 없는 외중에 스포츠계의 성차별이라니!! 스포츠는 ‘뺨어플레이’가 기본이 아니던가. 그 곳에 다른 분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비상식적 플레이가 횡행한단다.

현재 우리나라에 여성 프로팀이 있는 종목은 농구(6팀)와 배구(5팀) 2개 종목이다. 이들 팀을 이끄는 감독과 코치 22명 중 여성은 단 한명이다. 실업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농구(5팀), 핸드볼(5팀), 축구(5팀), 하키(5팀), 소프트볼(2팀) 등 주요 종목에서 감독 중 여성은 2명뿐이다.

이 외 44개 종목에 걸쳐 1859개의 여성 실업팀에는 여성 지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한체육회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비인기 종목인 것을 감안해 여성지도자 수가 훨씬 적을 것이라는 예측만 할 뿐이다.

그럼, 인재가 없어서냐. 체육의 꽃(이런 표현에 비호감이신 분들께 죄송하다.-.-)이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76년부터 96년까지 20년간 여성선수가 탄 메달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세계에서 이름 떨치는 스포츠인 대다수가 여성이다. 그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남자스포츠도 남자가, 여성스포츠도 남자가 지도자를 할까?

박찬숙 농구인은 우리은행 신입감독 후보 6명 중에 올랐다가 1차 과정에서 탈락되었다. 박찬숙은 이를 성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입감독은 남자가 되었다. 10년 동안 여자감독은 한명도 없었다. 우리은행장은 유승희 의원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남자감독이 팀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은행 구단측은 6명의 감독후보를 나란히 놓고 누가 가장 감독으로서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았을까? 공정한 평가의 대상으로 ‘박찬숙’이 있었는지, ‘들러리’로 ‘여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대답을 해야 한다.

한편,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박 감독은 우리은행을 사직했다. 박 감독은 우리은행의 직원이다. 피해선수는 우리은행 구단의 소속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할 일은 너무 명확하다. 우리은행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환경을 제공한 것을 사과해야 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으로 무마하려 한 것을 사과해야 하며, 피해자가 내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수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은행도 알고 있을 것이다.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 총자산 200조가 넘는 최정상급 은행이라면 법을 알려주는 변호사도 있을 테고, 은근슬쩍 모르는 척하기에는 너무 큰 기업이지 않은가.

민우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는 6월 29일 우리은행 앞에서 시위를 했다. 우리은행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해결을 촉구했다. 선수를 트레이드한다는 소문도 있고, 박 감독은 재판장에서 몇몇 질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최모의원을 역할모델 삼았나 보다. 우리은행이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풀지 않아서다. 다시 각을 잡아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27일 토론회에서 ‘이 정도인지 몰랐다. 대책을 세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덥진 않지만, 믿는 거 말고는 대책이 없으니 일단 믿어보자. 두 여성의 용기로 스포츠계가 평등과 인권확보라는 가치를 돌아보고 새롭게 만들어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 **업**

박봉 ● 필자소개 매번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게으른 봉처장

이 글이 쓰여진 후인 7월 6일, 박 감독은 사회봉사 200시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리은행은 같은 날 성희롱예방교육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만취와 국위선양이 감형의 이유가 되었다. 우리은행과 체육계가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는 아직 모른다. 갈 길이 멀다.

오늘 해는 87년 6월항쟁 20주년이자, '민주정부' 10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정부 10년이 된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민주정부 10년의 실패와 한계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6·15 남북화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여성 정무장관,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국민정부 하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면, 참여정부 하에서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2005년 3월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성장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주류 여성운동' -사회전체적인 구도와는 별개로-으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 질서, 성문화, 젠더정치, 성(sexuality/sex)을 둘러싼

여론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요즘 여성부와 여성운동의 여러 성과 중의 하나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을 둘러싼 실천이 뭔가 보완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진보적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선도했고 현재 이의 철저한 시행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유롭고 자율적인 성의 영역(여기서부터 성은 섹슈얼리티보다는 주로 섹스의 의미에서 사용된다)을 확장하기 위한 금진주의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특별법에는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성노예 금지',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이라는 보편적인 규범을 구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禁止主義)적 규율이다. 전자의 측면에서 성매매특별법은 한국사회를 세계적 표준에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후자와 관련해서 논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금지주의(禁止主義)나 합법주의, 규제주의와 같은 쟁점이 존재한다. 성매매특별법은 '금지주의' 대 '합법주의'의 쟁점에서 전자에 선다고 판단된다. 성매매특별법을 합법주의나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쟁점화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물론 이것도 우리 모두의 고민의 주제이다-현재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은, 왜곡된 공식적인 성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성(sex)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유교적' 성비하(性卑下) 인식과 행태가 존재하면서, 비공식적·음성적으로

이중적 성문화의 극복과 자율적 성영역의 확대

성매매특별법, 금지주의, 도덕주의

조희연 ●

는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성에 대한 도덕주의적 관념은 '공식적 성윤리와 비공식적 성문화' 사이의 괴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처벌받지 않는 성매매는 역으로 이중적인 성문화를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전제하는 금지주의를 수용하되, 그것이 대중들에게 성문화 일반에 대한 도덕주의적 규율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는 간통제의 폐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노력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성인식에 대한 금지주의적 전환이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은밀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성은 여성과 남성 주체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열린 영역으로 생각한다. 즉 '둘이 좋으면 맘대로 하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지배규범인 공식적인 성문화의 해빙(解氷)을 통해서 '자율

적인 성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성매매를 촉진하는 구조적·관계적 근거를 동시에 극복해 가야 한다. 이러한 자율과 자유의 증대는 다양한 성적 취향의 표현 양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개방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지주의 자체의 지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이 아닌 권력과 돈, 폭력에 의한 성을 금지하고자 하는 지향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 금지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전제로 한 성의 자율적 영역'을 대폭 확장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물론 '사랑을 전제로 한 성' 자체도 '일부일처제적 성'과 동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책임을 전제로 한 성'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물론 가족을 둘러싼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그 책임 자체의 하중(荷重)을 낮추어 가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은 또 하나의 쾌거인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전환적 계기를 맞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족관계의

일정한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제도변화는 다양한 현실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부장적 구조의 변화가 이중적 성문화의 지속과 맞물릴 때, 가족 관계의 변화는 지체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자율적 성의 영역의 확대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성매매 금지노력과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성문화의 자율성 확대와 음성적인 성매매의 축소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보완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주어진 젠더질서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젠더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진보주의자들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조희연 ● 성공회대에서 사회과학부·NGO대학원 교수이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한국여성민우회 이사로서 함께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 '학계의 미당벌'이라고 자칭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종합병동'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닐 정도로 '비실비실하게 살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dnsm.skhu.ac.kr>

○ 민우 스케치

● 2007여성주의학교 「여성노동, 가로질러사유하기」



여성노동과 신자유주의, 가족, 성, 건강을 조한 주제로, 여성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을 통합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6일~7월 5일



● 제4회 달빛시위

성폭력의 책임과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달빛시위가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4팀이 출발하여 시내를 행진한 후 서울역 광장에서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7월 6일, 서울역 광장

● 「스포츠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토론회

민우회와 문화연대는 전 우리은행 농구팀 감독의 소속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과 함께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6월 27일, 배재학술지원센터



● 2007 상근활동가 워크숍 「연가리에서 쉬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에서 즐겁게 쉬고 왔습니다.

7월 12일~14일



● 「여성건강포럼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젠더」

여성건강정책 및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여성건강포럼을 열었습니다. 여성건강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건강포럼을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실태 드러내기 증언대 (여성노동연대회의 주최)

반노동기업 이랜드의 임금, 모성보호, 고용불안, 직장내 성희롱, 공권력 탄압에 대한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증언대를 열었습니다.

7월 19일, 강남 뉴코아 점

※ 민우회는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에 참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홈페이지 참조)

연재기획

- ①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 ② 자매애는 있는가
- ③ 행복찾기

민우역사기행

- ① 1997 민우회와 들꽃, 지하철을 건다
- ② 1988 직장내 폭력 추방운동
- ③ 성희롱 소송, 그 역사적 장정에 함께 하다

연재기획 ○

행복찾기

Happiness

때론 여성주의자들의 머리와 심장에 '행복칩'이 하나씩 들어 있는 SF적 공상을 해본다. 여성주의자들을 '까칠하게' 만드는 지뢰밭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끄떡하지 않도록, 하지만 결국 행복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억지웃음을 짓지 않으면서도 꿀꿀함 속에서 새록새록 즐거움을 찾는 비법이 가득한 행복칩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자. 이래저래 서로의 지혜를 나눌수록 우리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를 읽고...

어느 날, 함여에 실린 글에 대한 의견이 편집부로 전달되었다. 함여의 한 독자 분께서 5·6월 호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내주신 것이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에 감동한 편집팀은 이 페이지를 '경사났네' 컨셉으로 디자인해 달라는 오바스런 주문으로 기획사를 괴롭히기까지...; 고품격히 읽고, 생각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민우역사기행

민우회 20년 역사 속으로 떠나는 민우역사기행. 세번째 도착지는 1993년 서울대 성희롱 사건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고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 한 여성의 용기와 사회의 연대가 이루어낸 변화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내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주설령 ●

하나. 다섯 남매의 셋째 딸, 어린시절부터 셋째 딸은 선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위로 언니 둘과 아래로 남동생 둘. 가부장적인, 그것도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나의 아버지는 이복에 처자를 두고 어찌어찌하여 홀로 내려오신 분이다) 밑에서의 셋째 딸의 위치를 상상해 보시라. 눈치 100단이기에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살아왔다. 나의 행복집은 그렇게 시작되고 발휘되었다.

둘. 사회로 직접 나가 돈을 벌진 못하지만 남편 월급이 내 월급이 되는 월급날 25일 이후, 20만원쯤의 돈을 찾아 남대문 시장으로 간다. 이름하여 '20만원의 즐거움.'

셋. 민우회에서 10여년을 자원활동가로 일하면서 북악산의 세계절을 음미하게 되다. 상계동에서 광화문까지 번잡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은 피톤치드를 맡으며 북악스카이웨이를 이용한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욱한 날, 정상에서의 커피맛이란... 기쁨은 향이 좋은 담배도... 급기야는 내년 2월 북악산 자락의 우암동으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

넷.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사랑하는 친구와 뜬금없이 만나 내가 자주 가는 곳이나 그녀가 자주 가는 곳을 함께 걷는다. 서울 한복판에서 즐거울 수 있는 곳. 덕수궁과 그 옆 돌담길의 미술관, 경복궁과 삼청동의 식당, 창경궁과 인사동 그리고 조계사 안뜰까지, 평창동 미술관과 카페, 성공회 교회 뒷마당과 찻집, 그리고 길상사...

다섯. 20여년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말 안하고 지내보기. 처음 시도할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다보니 요령도 생기고 좌책감도 덜하고 묘한 쾌감도 있다. 자연스럽게 나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함께 집에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행복

이화영 ●

자칭 무색, 무미, 무취인 내게 행복이란 통통 튀는 그 무엇인 것 같기도 하고, 광채 나는 그 무엇인 것 같기도 하다. 분명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도 난 그 단어를 여기저기서 보고 듣긴 했는데...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 잠시 즐거운 느낌인가? 진하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감동인가? 앗, 그냥 하루하루의 삶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득 채워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행복감'으로 보내는 시간이 있는 반면 행복의 의미들을 '굳이' 되새김질 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시간도 있다.

여유가 사라진 요즘의 내 생활. 오늘 아침에도 난 4분의 1 쪽이 되어야 했다. 마지막 시험날이라고 큰 딸은 누렇게 돼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둘째 딸은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어찌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한 손가락이라도 먹이려 뭘까 준비를 한다. 두 딸이 학교에 간 후 남는 건 남편과 나.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 남편의 비행기시간 대기, 그 사이 난 남편이 빠뜨린 옷가지 몇 개와 집안 정리를 후다닥 마친다. 남편이 떠난 후 가방을 챙겨 모초등학교의 미디어 수업을 위해 발걸음도 당당히 나섰으나 왠지 머릿속은 어수선하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우리의 몇 분 미디어 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분위기 전환. 그리고 애들과의 수업. 참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인사해 주는 한 남학생의 말에 미소로 답한다(때론 아이들의 수업태도에 조금 우울해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 내 일상의 모습 중 하나이다. 4분의 1이 된 나? 이게 전부 나? 하나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잠깐이나마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맘이 맞는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떠는 것,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꿈꿔 보는 것. 이게 나의 행복이 아닌가 싶다.



진정 행복을 찾고 싶다면 빨간약을 삼켜라

버사 ●

여성주의자로서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본다. 참으로 어렵다.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배제되어 왔던 행복을 찾겠다는 개인의 강력한 행복추구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간 나름대로 익숙해져버린 삶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빨간약을 대뜸 집어삼키고 가부장제라는 단단한 그물망의 '매트릭스'에 도전을 해보겠다는 겁 없는 용기이다. 한마디로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너무 의기소침할 것은 없다.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고진감래'라고 힘든 노동 후에 새삼이 꽃맛이듯, 고생 끝에 맛보는 참 행복이라는 값진 결과도 있다. 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행복을 맛본 적이 있다. 몇 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존경하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분이 외할머니였다. 여자도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외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꼭 내손을 잡고 근처 문방구로 데려가 책 한권을 고르게 하셨다. 지금의 내가 가진 책에 대한 욕심과 활자 중독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외할머니의 부고를 즉시 회사에 알렸다. 또, 조부모 사망 시 사용가능한 경조사 휴가내용과 지원비용에 대해 문의했다. 인사부 직원은 조부모 사망과 관련된 복리제도를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외조부모라는 사실을 얘기하자, 외조부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부계에 당연히 지원되는 조의금, 화환, 경조휴가 등이 모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고 분노했다.

90년도에 민법에 친족 정의 수정이 있었다. 이전에 부계8촌, 모계4촌까지였던 것을 부모계 다 4촌까지로 수정하여 부모계의 차별을 철폐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제 복리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행은 여전히 가부장제에 머물고 있으며, 모계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당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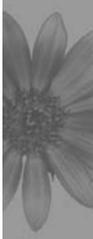
다는 듯이 가지고 있다. 나에게 부모계는 다 똑같은 친족이며 여기에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과거 내가 성장한 70년대에 자녀의 양육은 여성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외가는 친가보다 더욱 가깝고 친밀한 존재였다. 요즘은 어떤가? 모일간지에서는 증가하는 맞벌이부부로 자녀양육을 외할머니가 담당하면서, 사위가 장모눈치를 보는 모계사회가 도래했다고 뽕튀기를 하고 있지만, 모계가 떠맡는 역할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대접은 여전히 형편없다.

내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외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고, 회사 동료들과 경조사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했다. 예산의 한정이라는 흔한 변명 앞에서 왜 선택의 문제에서 한쪽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기타 복리후생비용을 할애하거나, 부계에만 전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반으로 줄여 부모계 똑같이 지원하는 등 방법을 고안할 것을 제의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규정 자체검토를 통해 부모계 경조사 부담을 나누어 외조부모에 대한 경조사 지원을 가능케 규정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여성주의자로서 오랜만에 맛본 달디단 행복과 뿌듯함의 순간이었다.

행복은 항상 내 곁에~

홍미용 ●

“그래서 어찌라고?” “네에~네에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쫘 그렇거든요~” “그래도 엄마보단 나애”
 요즘 이 아줌마는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든 반항기 만병인 초딩 5학년짜리 딸애랑 날이면 날마다 온갖 유치한 문제로 사사건건 전쟁 중이다.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귀엽고 사랑스럽던 내 딸은 어디로 갔을까? 눈을 흘기고 악다구니로 대들고 굶기야는 은밀한 악점까지 들춰내서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12살짜리 어른인 척하는 아직 덜 자란 여자애! 세상에나! 천사 같았던 내 사랑



이 줄지에 웬수덩어리로 급변하더니 답답하고 괴로운 이 내 가슴을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반쪽이라던 남편은 살벌하고 팽팽한 그러면서 이 루 말 할 수 없이 치사한 작금의 모녀 전쟁을 머리로 이해하기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가슴으로 공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지라 못 들은 척, 못 본 척, 말 못하는 척, 만 만치 않은 두 여자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코가 석자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도 뜻하지 않았던 행운은 찾아왔다. 까말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2박 3일로 캠프를 간다고 했다. 얼마 만에 가져 볼 분쟁 없는 세상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만나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가? 현관에서 섭섭한 척 배웅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배 시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우선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했다. 그 다음엔 딸애가 분위기 따운이라며 질색하던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카페인 중독자 되려고 그러냐고 잔소리 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으니 커피도 하나 가득 내렸다. 꿀 내키는 대로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케이블에서 19세 빨간 딱지가 그려진 영화도 봤다. 입이 심심하면 슈퍼에 가서 다양한 주전부리를 사다가 뒹굴며 먹었다.

그런데! 딱 24시간, 만 하루였다! 술을 심심하고 무료해졌다. 딸애가 있을 땐 악착같이 틈새를 노리면서 즐겼던 소소한 일상들이 막상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고 나니까 덜 재밌게 느껴졌다. 게다가 얼굴 맞대면 또 으르렁거릴 걸 뻔히 알면서도 웬수덩어리 딸이 없다는 것이 허전하기까지 했다. 참 웃긴 일이다. 또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도 하다. 지긋지긋하다고 꼬리표 딱 붙여놨던 내 생활이 결국은 소소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조건이 되었다는.

행복이란 말은 흔해빠지고 진부한 말이라서 별로 흥미로울 것도 없는 얘기꺼리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 꼭 뭔가를 새로 가지거나 또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결국 그냥 지금의 나를 또 내 삶을 처량 없이 받아들인다면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을까? 딸아이와의 가열한 전투가 내 행복의 일부분이라 여기며 오늘도 고고~싱이다.

행복

소다 ●

나는 때때로 행복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이 오기로 한 날을 앞질러 뜻밖의 시간에 고스란히 안겨질 때, 월랑거리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펼칠 때 나는 행복하다. 냉장고 떨이를 할 작심으로 남은 반찬 모두 털어 넣고 큰 양푼에 밥 비벼 아이들과 손가락 씹질을 해대며 얻은 든든한 포만감에 나는 행복하고, 직원들과 열 띤 토론 후에 얻게 된 색다른 아이디어에 화들짝 놀라며 행복하다. 받지 않으려니 각오하고 한 인사에 경비원 아저씨 소탕하게 웃음으로 화답할 때 행복하고, 막히려니 마음 비우고 간 길이 땡 뚫릴 때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때때로 행복하지 않다. 구조적 모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어설피게 강의하는 내 직업이 행복하지 않고, 해도 해도 뚫을 수 없을 듯한 유리천장, 유리벽이 나를 옥질 때 행복하지 않다.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동동거리며 바빠 일하고 돌아온 허기진 밤, 한 톨도 남지 않은 밥통을 보면서도 남편처럼 짜증 못 내고 눈치 봐야 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고, 학부모회 구석발치에서 애들 학원 얘기, 성적 얘기 들은 날 밤, 좋은 엄마 못 된 자책감에 뒤척이며 행복하지 않다.

그래도 아직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내 방식으로 치를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모자라지만 내가 가는 길을 모델 삼아 꿈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도 있다. 애면글면 함께 통탄하고 함께 헤쳐 나갈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다.

행복은 행운처럼 기다린다고 우연히 와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찾고 만들고 느끼고 새겨야 한다. 실낱같이 가느다란 행복의 기미라도 보이거든... 꼭 붙잡자. 행복은 온전히 내가 나를 위해 뜻매김하는 자축 파티다.

이오 ●

맘보 : 연애하고픈 남 녀는 개를 키워라. 행복하고픈 언니는 고양이를 길러라

잠보 : 오잉? 고양이 두 마리에 강아지까지 식구가 불어나더니 뭘 낀수 생겼어?

맘보 : 요즘 강아지 산책 델고 다니느라 말수가 늘었다니깐요. 처음 본 사람들이 막 말을 걸어요. 어제도 단추(강아지)를 델고 나갔더니 어떤 훈님이 애한테 말을 거네?

잠보 : 같은 위치에 또 델고 나가봐, 마주치면 전화번호라도 따게. 나도 공원에 머루(강아지) 델고 나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어머, 넌 코믹하게 생긴 백설공주로구나!” 그러더니 떡을 한 봉지 안겨주데.

맘보 : 강아지 앵벌이 시키는 주인님! 근데 짱구와 호동이(고양이)는 앞발을 모으고 날 쳐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니 몰라요. 고양이의 얼굴은 완전 대칭이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시각적 쾌감도 크대요.

잠보 : 아름다움을 바로 옆에서 늘 접하는 것도 행복하지. 난 그래서 갈일이 바쁠 때에도 ‘저 불쌍한 것들 도와준다’는 생각보다도 ‘저 이쁜 것들 조금 덜 배고프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더 들어.

맘보 : 우울한 사람을 웃게 하고 딱딱한 도시인끼리 잠깐 동안의 대화라도 나누게 하는 반려동물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런 게 사람들을 잠시라도 행복하게 하잖아요.

잠보 :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릿한 상태’라네? 근데 내가 이런 행복감을 느끼려면 내 감정이 그냥 단순해져야 하는 것 같아. 사람이 아무리 성취를 하고 돈을 벌어도 ‘충분한

만족’을 할 정도로 단순한 감정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근데 동물과 함께 있으면 그런 순수한, 단순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더라구. 그건 동물이 사람보다 극도로 단순한 성질을 지닌 것에서 비롯되는 걸지도 몰라. 사람을 대할 때 만큼 머리를 안 굴러도 되잖아.

맘보 : 특히 강아지는 기르는 사람들은, 애들이 자신의 ‘확장’(extension of ego)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이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고양이는 약간의 암체성이 개성으로 돋보일 만큼 충분한 즐거움과 위안을 주어서 사랑스럽구요. 으, 그녀석들이 저랑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볼 때 저 행복해용! 또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 두 녀석이 박치기하듯 서로 공중으로 뛰어올라 반가워할 때 좋아 죽겠어요!

잠보 : 내가 누우면 쫓아와서 척 내 팔베개하고 드러누울 때 뿌듯해~ 근데, 개나 고양이라도 사람만큼 행복할까? 우리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맘보 : 개네들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동물을 기르면서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저절로 생겨나더라구요. 또 거창한 말이지만, 살아있는 것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인간을 기르는 것의 위대함,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권리랄까, 그런 데 눈뜨게 됐어요. 퇴직금의 일부를 길고양이 구제하고 증성화시키는 데 쓸거예요.

잠보 : 우리 언젠가 동물들의 행복추구권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오늘은 개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대해서만 떠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 암튼 내 삶의 행복어사전 첫 페이지에는 반려동물, 두둥~**앹**





맑은 피가 행복이다!

유기성 ●

‘행복.’ 이 평범하고 익숙한 단어를 얻기 위해 인간은 길고도 고통스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듯 내가 보기에 공짜 행복도 없다. 내가 원하는 행복의 양만큼 내 눈에서 피눈물 흘러야 그게 내 것이 된다. 간장중지만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 괴로워하면 되고, 향아리만한 행복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만큼 슬픔을 겪으면 된다. 하지만 태평양 같은 행복을 품고 싶다면 꼭 그만큼의 싸움을 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사투를...

진정한 행복엔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주체성이다. 철저히 주체적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회 통념에 따라 대충 살면 죽을 때까지 열등감에 휩싸이고 불행해 빠져 허우적대기 십상이다.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얼굴이 없듯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며 유일한 존재다. 신의 상품이 아니라 신의 작품이다. 그걸 투철히 깨달아

야 한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가장 고귀한 생명임을 뺏속깊이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실패와 모멸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다로 가도 나 혼자 산으로 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주체성 없인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주체성은 ‘나를 알기’부터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 취향이 바로 나다. 내 싫고 좋음이 나이고, 내 욕망과 스타일이 바로 나다. 각자 ‘나’를 냉철히 파악해야 출발이 순조롭다. 먼저 내가 나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 ‘관계 맺기’나 소통도 그 다음이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어여삐 여길 때 정신적으로 직립(直立)할 수 있다. 주체성 있는 사람이 ‘자기 고독’을 지켜낼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본다. 자기 고독을 지켜낸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행복을 얻고자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언제나 허기지고 늘 상처받는다. 행복을 원하면 먼저 자기 고독을 극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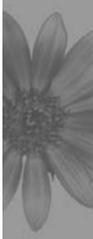
그래야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나눔의 관계도 원만히 형성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부모, 남편, 자식도 타인이다. 그런데 주위의 주부들 보면, 대개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식이 묶여 24시간 ‘돌봄 노동’에 헌신하다 골병든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부는 하녀도, 가정부도 아닌데, 자존감 없는 가족사랑은 피곤한 집착으로 식구들을 억압할 뿐인데... 같은 여성 입장에서 안타깝다. 지금 내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행복은 유예될 수 없다.

나는 어떤 종교적 신념도, 사회적 운동도, 인간관계도 자기 영혼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 난 주체성 하나는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홀로 당당히 내 길을 간다!

둘째, 긍정성이다.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을 긍정해야 타인 또는 세상과 건강히 소통할 수 있다. 부정적인 자의식으로 푹푹 묻혀 말끝마다 비관적인 뉘앙스 풍기는 사람을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긍정’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자아 존중감이 높고 자기 충실지수가 높은 법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간다. 긍정의 퍼센트를 높여 가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라고 본다. 그래서 삶은 본질적으로 구도의 길과 흡사하다. 냉소적인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성찰과 자기반성도 없다. 긍정적인 사람이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도 쓰고 명상도 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기도한다. 어느 종교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난다. 너그럽고 유연하며 충만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한다. 남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한다. 힘이 있다. 내 주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몇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 중 여러 명이 극단적 우울감과 매우 부정적인 의식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다. 내가 갖지 못한 부와, 사회적 명예와, 좋은 직장과, 명성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왜 얼굴에 웃음이 없을까? 왜 고운 미소가 없을까? 왜 긍정적인 감사가 없을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허약할까? 그리하여 타인에 대한 믿음도 왜 약화된 것일까?...

셋째, 상상력이다. 상상력 없인 행복할 수 없다. 현실이 아름다운가? 아니다. 현실은 너절하고 치사하며 지긋지긋하고 역겹다. 악마적인 자본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으며 잔혹하고 삭막하고, 벽돌처럼 차갑게 닫혀 있다. 어디에도 사랑은 없다. 어디에도 따뜻한 정은 없다. 어디에도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비정한 세상에 ‘내’ 사랑으로 따뜻함을 열어가야 한다. 내 열정으로 사람들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 있는 목숨이다. 선(禪)적인 직관 비슷하게 말해도 된다면, 몸뚱이는 다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 진정 깨어있는 자는 몇 없다. 정말 영혼이 깨어 ‘사랑의 빛’을 뿌리며 걷는 자는 극소수다.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에 파묻혀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깊은 명상을 통해 체득한 우주의 생



명에너지로 새로운 창조성의 지평을 열어가는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맑은 피다! 착한 사람이 덜컥 압에 걸린 경우도 너무 많지만, 일부는 피가 혼탁해서 압에 걸린다. 요즘 암이 마치 감기환자처럼 흔해졌지만, 역시 암은 오랫동안 쌓인 습관에서 비롯된다.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실체는 바로 부정적인 자의식이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랑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긍정과 감사가 풍부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겨낸다. 스트레스에 강하다. 당연히 면역력도 높다. 똑같이 사회생활 해도 적극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늘 입가에 미소가 머물며 피가 맑다. 하지만 일부 냉소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자는 피가 더럽고 혼탁하다. 그런 사람은 표정도 구질구질하고 어딘가 굴절돼 있고, 지저분하며 영혼에서 악취가 풍긴다. 그런 자는 면역력도 나빠져 금방 외부의 질병에 지고 만다. 스트레스 지수와 혈관노화도는 비례한다고 한다. 질병은 천 가지, 건강은 하나다. 행복을 원하면 피가 맑아야 한다. 몸은 거짓말 안 한다. 피를 맑게 하고 싶다면, 왜곡된 자의식을 버리고 무상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 순간에 나와 타인'을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 된다. 사랑의 표현만이, 따뜻함만이 정답이다.

겨우 이 정도 글을 쓰기 위해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다. 서러워 울고, 좌절해 울고, 외로워 울고, 가난해 울고, 충분히 주었건만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

줘 울었다. 정말 많이 울었다. 하루 종일 울었고, 밤새워 울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울다 울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더 이상 울 일이 없었다.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나왔다. 사지육신 멀쩡하고, 오늘도 밥 세끼 굶지 않고 은행 빛이 엄청 나지만 그래도 작은 보금자리가 있으니 감사하다. 총명하고 건강한 자식들이 있으니 고맙다. 비록 무명시인이지만 시집도 냈고, 또 내 글을 마음으로 좋아하는 벗들이 있으니 기쁘다.

한 폰이라도 아끼려고 4천 원짜리 주말 조조영화를 남편과 단둘이 볼 때도 행복하고, 내가 정신없이 글 쓸 때 중1인 큰 아들이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줄 때도, 잔뜩 쌓인 설거지를 초3인 둘째 아들이 다 해줄 때도 행복하고, 외국가기 전 만난 후배가 쿠바 여가수 '알마 로사'의 음반을 선물했을 때도 감사하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이미현 바른생협 이사장이 'EM(미생물) 원액'을 주었을 때, 이는 출판사 사장이 이시무레 미치코의 <슬픈 미나마타> 책을 건넸을 때, 집에서 혼자 쌀 씻으며 사라 브라이트만의 예리하게 빛나는 노래를 들을 때도 나는, 행복, 하다!

행복은 내 손안에, 내 가슴에 있다. 내 주체성과, 긍정성과, 상상력과, 맑은 피에 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지 않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그걸 내 손으로 찾아내야 한다.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행복이라는 보석'을! **암**

유기성(시인) ● yukeesung@hanmail.net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 를 읽고... *

강문순 ●

‘자매애는 있는가’라는 좌담과 자매애에 대한 이오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른 기사들을 읽을 때와는 달리, 무조건 공감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불편한 부분이 느껴졌다. 우선 ‘자매애는 있는가’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좌담 참석자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제목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좌담 참석자들이 자매애와 소통을 연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말이 하고 싶어졌다. 이 불편함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즘 나오는 여성운동에 관한 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편함을 느꼈었다는 것을 기억해 내었다.

여태까지의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나 이 기사에서 내가 느꼈던 불편함은 무엇일까. 새로운 생각이나 이론들은 당연히 기존의 생각이나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비판이 불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생각이나 이론들이 기존의 생각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기존의 생각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운동이든 개인이든 생각의 흐름에는 단계와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성들이 자매애를 느끼고 자매애를 얘기하는 단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매애를 넘어서는, 개인 간의 차이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단계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나 자신도 자매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매애를 느끼고, 자매애에서 힘을 얻고, 자매애를 통해서 여성들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개인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민감해지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사(단계)가 설명되지 않고 ‘자매애는 있는가’(이 제목의 정확한 의미는 자매애라는 개념이 실제적인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자매애가 강박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불편한 느낌을 준다. 물론 나 또한 여성주의를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여성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좌

절하기도 하였다. 어떤 이데올로기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면 개인을 함게 하고 좌절시킨다. 그러므로 자매애가 우리를 통해서 규범처럼 타인들에게 요구될 때 나타나는 문제와 자매애가 여성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좌담기사와 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듯이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한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나로서는 자매애가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개념의 하나로, 그리고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세상을 표현하는 개념의 하나로 아직은 유효하다는 생각이지만.

두 번째 불편함은 자매애가 추상이며 이상이라는 것에서 왔다. 여성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같은 생각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사람들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자매애라면 그것이 다만 추상이거나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힘을 주는 현실이다. 외도 피해자와 여성주의자가 부딪힌다면 자매애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자매애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다. 물론 그 여성주의자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외도 피해자의 경험을 한정하려 하거나 외도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피해자에게 여성주의적 시각을 알려주고픈, 그래서 그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욕심이 앞서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자매애가 추상이나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일 때 오히려 외도 피해자의 현실에 더 잘 공감하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딪힘이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함**

강문순 ● 진주여성민우회 회원, 열정적으로 여성운동을 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여성운동 속에서 살아 온 세월들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인 나이 때문에 과거의 운동 속의 개념이나 운동방식을 비판하는 글들이 과거를 충분히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게 되나 부다.

성희롱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

성희롱 소송, 그 역사적 장면에 함께 하다

이수연 ●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1993년 9월경이었다.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다. 만남이 거듭되고 겪어볼수록 힘들고 어려운 결심을 한 사람답게 당차고 아무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기다렸다고? 그렇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당시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필자는 1992년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여하면서 성폭력추방의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당시 특위에는 민우회를 비롯하여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 즈음에 발생한 김부남 사건¹⁾, 김보은·김진관 사건²⁾ 등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들은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과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재판결과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들은 우리 사회 도처에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오랜 세월 은폐되었던 사건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여성단체들은 대책위를 조직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에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등 왕성한 대책활동을 벌여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비로소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실로 놀라운 변화였다.

1)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피해자는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2) 아버지가 딸을 수년 동안 근친강간한 사건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민우회, 직장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다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 확보를 중요한 활동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웠던 민우회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중에서도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상담창구를 통하여 기습 절절한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었으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은 물론 직장을 잃으면서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피해자는 매우 드물었다. 속으로 앓으면서 참고 넘어가거나 조용히 직장을 떠나 버리는 소극적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문제가 여성의 노동권에 심각한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분위기에서는 문제제기조차 힘들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 수준과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우회에는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무직회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폭력 연구반'을 구성하였고 필자가 간사를 맡았다. 소모임에서 회원들과 함께 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를 만들기도 하고, 서울 시내 한 복판인 명동 거리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단을 배포하면서 호신용 호루라기를 하나라도 더 팔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 기억도 있다. 또한 세미나를 하면서 자신의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례를 의논하기도 하고 스웨덴에서의 성희롱 경험을 담은 책을 구해 공부도 하면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함께 개탄하기도 하였다.

용기 있는 그녀를 만나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한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여성인권의 사각지대였다. 피해자 중 그 누구도 사회에 고발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용기 있게 나서 주면 나는 그녀를 위해 이 한 몸 바칠 텐데...' 하



No.	Name	Sex	Address	Phone	Signature
1	AUSTRIA	WIL DOORNEN	CHIEF		
2	USA		
3	ALGERIA		
4	ARGENTINA		
5	AUSTRALIA		
6	AUSTRIA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성희롱 대책 시민연대가 주최한 성희롱 추방 거리 캠페인 (1995년 8월 23일)

② 전교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노련)이 1994년 12월 14일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연대 서명의 일부. 사무노련은 같은 해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상업, 사무, 전문, 기술직노조연맹(IET)이 개최한 국제여성회의에서 이 사건을 알렸고, 국제회의의 30여개국의 여성대표들의 연대지지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③ 1995년 7월 26~28일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는 법원앞 시위

④ 1차 공판에 대해 다룬 1993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



는 소망을 품고서 나는 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그 기다림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난 우조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녀가 고통의 그늘 속에서 걸어 나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던 나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감격스러웠다. 그녀는 서울대 내외의 수많은 비난에 시달리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꿋꿋한 심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당차게 나서준 그녀가 대견하고도 고마웠다. 자신의 직장에서 그것도 지성의 전당이라는 서울대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교수로부터 그러한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6년간의 역사적 장정에 함께 한 사람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연의 '특위'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발 빠르게 전환하였다. 여성단체 활동가들, 변호사, 학생 등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서울대 공대위 참여자들은 우조교를 중심으로 '환상의 콤비 드림팀'을 구성하여 장장 6년여 간의 역사적인 장정에 함께 하였다. 인권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으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실무능력과 연대의식으로, 서울대 학생들은 학내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정의감으로 법정, 거리, 토론회 등 어디서건 늘 함께 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1993년 당시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와 관련 법률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우조교측에서는 가해자 신교수와 그 소속기관인 서울대, 서울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1993년에 시작된 소송은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다가 소송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1999년 11월에서야 승소가 확정되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만을 인정했을 뿐 사용자 책임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대위에서 개최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와 민우회가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다룬 1993년 12월 9일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

1993년, 직장내 성희롱에 대처했던 민우회의 자세

성희롱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성희롱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널리 홍보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민우회는 공대위에 참여하면서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1993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무직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민우회는 또한 외국

에서 입수한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참고하여 성희롱 행위 유형들을 소개하고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 소책자형식의 예방지침서를 제작하였는데, 노동부나 여성부가 수년 후어나 이러한 성희롱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에 비하면 몇 년이나 빠른 셈이었다. 사실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대하여 성희롱과 관련된 컨텐츠들(성희롱의 종류와 판단기준, 미국 EEOC의 가이드라인 등 외국의 관련 제도들과 성희롱 판례들, 성희롱 예방 대책에 대한 자료 등)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훨씬 더 느렸을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당시 우조교를 정점으로 정의로운 공익변호사들, 여성인권 향상에 대한 열정이 드높던 여성단체들, 그리고 서울대 학생 중 행동하는 양심세력 등이 팀워크를 발휘하여 끝내 대법원에서의 승소를 얻어내었기에 오늘날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담당변호사들이 소장에서 언급하였던 표현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시냇물이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원고의 이용기는 우리 사회의 완전한 여성평등, 보다 인간적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작으나마 뚜렷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민우회에서 일한 덕분에 이러한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당시 공대위 활동이 인연이 되어 3쌍의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이 사건의 또 다른 성과(?)였다. 공대위 활동을 통해 일과 사랑을 한 번에 이루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타쌍피가 아닐는지? **함**



이수연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팀장으로 성차별, 성희롱 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때나 지금이나 성희롱과 싸우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3쌍의 커플에 속함

검은집, 해부학교실, 므이...

그리고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봉달 ●

늘 같은 얘기

하느라 힘드시겠어요? 라고 누군가 말한다. 줄기세포, 황우석, 난자채취 등과 관련하여 뭔가 말해야 할 때 자주 듣는 말이다. 사실 나도 이젠 좀 지겹다.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아닌가. 현실은 그대로인데, 변한 게 없는데, 어떤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까? 그래서 난 지겨워도 계속 떠들기로 마음먹는다.

‘황우석’

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이 사회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며 사라진지도 꽤 지났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에 ‘황우석 사태 혹은 무엇’으로 남아 있을 거다. 하지만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고 분노했는가? ‘황우석’이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그 진실은 ‘늘 같은 얘기’ 속에만 존재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그렇다. 황우석 연구팀이 연구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만 남아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조차 쉽게 사라지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끔찍하지만 예측가능하다. 황우석 연구팀이 줄기세포 1주라도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에 대한 맹목적인 열광은 상상초월일 것이며, 다른 목소리는 불가능할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난자기증의 성스러운 과업이 주어질 것이다.

다른 얘기

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현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너무 당연해 식상한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실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화, 국가경쟁력을 위해 획기적인 뭔가를 필요로 하는 국가, 인권과 윤리에 앞서 연구 성과에만 목매다는 연구자들, 여성들의 건강권보다 중요한 게 많은 의료진들, 출산의 압박에 시달리는 여성들. 이런 오래된 관행에 대한 반성과, 오래된 만큼 이를 변화시키려는 치열하고도 기발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줄기세포 1주라도’의 끔찍한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지난한 ‘변태의 과정’을 무시한다. 속살이 돌기도 전에 그럴듯한 껍데기만 만들려 한다. 그들은 말한다.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탄생한 법 중 하나가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이다.

생식세포?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생식세포는 ‘난자’와 ‘정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난자와 정자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이다. 국가에서 난자와

● 쟁점과 현안

정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보호한다고? 우리 사회 너무나 초지일관하시다. '황우석 사태'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그에 대한 대안조치 일반의 상식을 초월한다. 그런데 더 기막힌 노릇은, 이 법, '황우석 사태' 아니었으면 상상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다.

불임부부의 고통

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 기증, 이용함에 있어 적정을 도모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나 뭐라나.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불임 '치료' 라는 말도 기분 나쁘는데, '불임치료 등'이라고 하면서 실제 목적은 '등' 속에 포함시키는 비겁함이라니. 이 법은 정말 (불임시술과 연구를 위해) 남자와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다. 불임부부의 문제에 접근하고 싶다면 왜 다른 수많은 불임시술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왜 기증하는 경우만 관리하는가? 남자 또는 정자를 기증 받아 이루어지는 시술은 전체 불임시술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물론 이런 판지에 대해 그들이 준비한 모범답안도 알고 있다. 연구를 위한 남자제공이 '잔여남자'로 제한되어 '싱싱한 남자'를 공급받기는 불가능하므로 줄기세포 연구는 물 건너갔다는 거다. 그러니 남은 것은 불임시술뿐이라는 호소.

잔여남자

는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또는 사용할 남자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얼핏 보면 연구자들의 주장대



로 연구를 위한 남자이용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도 같다. 그런데 '잔여남자'라는 말에 속임수가 있다. 어디엔가 쓰고 남은 남자만을 뜻할 것 같은 '잔여남자', 하지만 정의를 보면 앞으로 '사용할(것으로 예상되는) 남자'를 제외한 것도 포함된다. 즉 의료진의 판단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불임시술을 위해 채취한 남자 중 일부가 실시간으로(채취하자마자) 연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싱싱한 남자들'이다. 이것은 상상력의 산물이라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그 경로로 수백 개의 남자가 황우석팀에 제공되었다. 연구자들, 좀 솔직해 보시라. '잔여남자' 여서가 아니라 '어떤 남자'든 줄기세포를 만들 수 없었던 게 현실 아닌가. 그럼에도 오직 더 많은 남자를 쉽게 제공받는 데만 관심 있을 뿐, 반성은 없다. 더욱 남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니. 그들에겐 여전히 '연구의 발목을 잡는 일'일 뿐이다.

연구자들, 좀 솔직해 보시라.

‘잔여난자’ 여서가 아니라 ‘어떤 난자’든

줄기세포를 만들 수 없었던 게 현실 아닌가.

그럼에도 오직 더 많은 난자를 쉽게 제공받는 데만

관심 있을 뿐, 반성은 없다.

더욱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니.

그들에겐 여전히 ‘연구의 발목을 잡는 일’일 뿐이다.

난자기증자

를 모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대 놓고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기증자’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불임치료를 명목으로 난자기증을 ‘권유 혹은 제안(모집이 아니라)’한 후 그 일부를 연구에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난자기증’의 모든 절차는 불임클리닉(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불임클리닉이나 관련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슴 절절한 ‘권유와 제안’이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다. 또 난자기증에 대한 보상이 하루 1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해진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겐 비교적 쉬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어차피 난자채취는 ‘누구나 다하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시술’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꼭 이걸 묻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을 뒤로 보느냐 하는 거다. 왜 자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의심하고 타인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것을 방해하느냐고 말한다.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절차에 의해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거다.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결정권’을 왜곡시키는 현실의 힘이 너무 세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동의절차는 그야말로 쉽게 ‘활용’된다.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익이 최우선인 사회, 성과만 중요한 연구진이나 의료진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불임시술을 받는 여성, 난치병 환자를 가족으로 둔 여성, 불리한 위치의 여성연구원들에게 다른 선택은 얼마나 가능할까? 일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강력한 힘들은, 그야말로 고래도 춤추게 할지 모른다. 물론 동의절차는 필수일 테지만.

여성인권과 존엄성

이 ‘난자채취’에서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난자와 정자를 사용하는 게 왜 다르냐, 위험성의 실체가 뭐냐고 ‘강력히’ 주장하던 줄기세포 연구자(나름의 권위를 인정받는 ‘직책’을 가졌던)와 ‘난자기증’을 통해 여성에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던 노망성(체세포핵이식연구지원을 위한 시민연합)의 목소리는 생생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내가 지켜워도 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 여름 줄줄이 개봉하는 공포영화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런 현실이 아닐까? **▶**

봉달 ● 어느 날 나에게도 하얀 옷 입은 모간프리먼 아저씨가 나타나
내 말과 생각이 바로바로 현실이 되는 상상을 해 본다.

그러면 늘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 할 텐데. 봉다르올마이티!!!를 꿈꾸며...



상상력이 필요한 때

따우 ●

비전문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떠들다

먼저 이 글의 청탁은 한두 다리도 아니고 몇 다리를 건넌 후에 내게 건너왔음을 밝힌다. 전문가가 써도 될까 말까 한 글을, '재미있게 살자' 외에는 별 생각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다니 '함께 가는 여성' 편집 팀도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써야 할 글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닌지 약간 걱정은 되지만, 비전문가라는 장점(?)을 살려 거침없이 얘기를 풀어 보기로 한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 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관심이 없었다. 왜? 나는 이미 취직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공무원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우리나라에 공무원 하겠다는 제대군인(군필자)이 이렇게 많았나? 공무원 할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들 좀 있지?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로부터 8년. 그 동안 나는 (둘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를 관두고 여성주의자가 되었고, 여성단체 활동가가 되었다(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니 나는 여전히 '비전문가' 맞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지, 사람들의 기억력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지,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는 잊을 만하면 누군가 한 번씩 들고 나오는 이슈가 되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아무개 의원께서 터뜨리셨단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방위 통과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어느 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군 가산점제는 여·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국가의 문제

IMF 이후에도 공무원은 여전히 인기 직업인지라 그런지 이번에도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토론방송에 나와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는 아무개씨는 '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고, '양성' 징병에 사회봉사 제도까지 군대 관련 주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여자도 군대 가거나(그럼 장애 여성과 남성들은 어떡해?), 군복무 기간만큼 사회봉사를 하라는 거다. 어쨌든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공무원 될 생각이 없는 나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드는 거다. 왜 다들 '가산점'에만 목매는 거야? 8년 전의 의문이 스멀스멀 다시 기어 나온다.

자, 보자. 공무원 채용할 때 가산점 달라고?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니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좋아, 그 정도 어렵겠나. 헛,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제대군인 간 차별 아닌가? 아뿔싸, 그럼 사기업에도 줘야겠네. 응? 그럼 자

영업자는 어떡해? 자영업자한테도 군 가산점제를 주자(자영업자한테 어떻게 '가산점'을 주냐고? 어허, 상상의 '여지'를 발휘하시라). 등등등 등등등. 그런데 이 방식은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가가 '모든' 제대군인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혜택' 내지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이 받는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할 텐가? 철푸덕. 대책이 없다(이쯤에서 여러분이 왜 이 문제가 여성·장애인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징집 제대군인 대 국가의 문제인지 눈치 채셨길 바란다. 그러니 공무원 안 될 제대군인들이여, 단결하라!). 뭐, 대책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어차피 국가가 제대군인을 평생 먹여 살릴 게 아닌 이상 '있을 때 잘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제 여기서 군대문화 민주화, 사병월급 현실화, 국민연금에 반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결국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씩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게 되면 군 가산점제 논란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물론 그 정도로 군대가 좋아지면 징병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테고, 모병제 내지 군대 해체 주장이 등장할 테지만. 군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즐겁다(어떻게 군대가 없어지냐고? 어허, 상상력!). 그럼 여기 따라오는 얘기. 그럼 세금 더 낼래? 응! 얼마든지 세금 더 낼 용의 있다. 월급이 적어서 세금도 얼마 안 걷어가는 게 한 가지 아쉬움이긴 하겠지만.

사고의 지평을 넓히자

그렇다면 군 가산점제가 도입될 경우, 이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군필자? 남자? 땡! 바로 국가다. 가산점만 주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들이대기도 어려운 월급으로 '신체 건강한' 남성을 2년 가까이 부릴

수 있다. 따로 보상에 줄 명분이 사라지니까. 가산점만 주면! 비민주적 군대문화? 낙후된 시설? 크게 투자할 필요 없다. 군대,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다. 어차피 '징집'이니까 방향한다고 어쩔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국가에게는 군 가산점제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 거다. 가산점제 하나로 모든 보상 의무를 나몰라라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군 가산점제가 아니라 무엇이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들을 상대적으로 휩싸이게 했는가, 이다(가산점제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말자. 예전에 가산점제 있을 때도 '기꺼이' 입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 다 안다). 즉, 가산점 찬성이나 반대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의원님들도 그렇고 여성·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가산점제 문제 터질 때마다 엇비슷한 얘기 되풀이하기 지겨울 거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어진 틀 안에서 생각하기를 강요받아 왔고, 모난 돌이 열심히 정 맞는 것을 지켜봐 왔으며, A와 B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억박지름도 당해 왔다(그래서 가산점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한편으로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이 상상력이라는 게,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나갈 때만 필요한 건 아니잖은가. **㉠**

따우 ● 회원에서 상근자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된 지 갓 한 달 지난 상근활동가.

회의는 싫다고 맨날 툴툴거리면서도 필요한 일은 어떻게든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재성은() 캐릭터입니다. 흐흐.



난 소중한니까요. 난 내가 자랑스러워요.

들통 ●

언 제나 5,6월이 되면 어김없이 마음이 설렌다. 그건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한껏 푸르러지는 날
씨와 함께,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면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퀴어 행사들을 친구들과 함
께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집약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드러나
는 순간은 퍼레이드가 아닐까 싶다.

퍼레이드는 일년에 단 한 번, 한국에 사는 동성애자들이 종로 대로를 걸으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북돋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식이다. 대사회적인 커밍
아웃은 아니더라도 동성애자인 개개인에겐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커밍아웃인 셈이고, 이
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동성애자 스스로도 내면화하고 있었던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의 세균을 어느 정도 박멸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이나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
는 것도 퍼레이드에서 가능한 일이다.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 신문과의 인
터뷰에서 '이성애가 정상이므로 동성애는 반대한다'라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그 발언을 '오바로크
한다', 즉 '꽤매버린다'라는 구호가 압도적이었다. <오바로크 이명박>이라는 피켓을 보고 얼마나 속
이 시원하던지 ㅋㅋ~!!

작년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퍼레이드에 참석하지 못했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엔 꼭 나가리
라 결심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떤 모습을 하고 나갈까 모의를 하다 교복풍의 옷을 맞춰
입고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 휘장을 두르고 나갔다. 역시 준비를 한 만큼 재미도 한층 더했다. 우리

우리(?)뿐 아니라 여기저기에 재미있는 분장을 하고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70년대 다방 분위기의 뽀글머리 멋쟁이 무리와, 천 사날개가 달린 헬멧과 반바



지를 착용한 인라인 스케이팅 팀 등 가까 넘치는 퀴어들이 화창한 하늘 아래 퍼레이드를 충분히 즐기고 있었다.

나 역시 친구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종로에 왔다가 이렇게 행진하는 나를 봤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아웃팅 시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라는 두려운 생각도 가끔씩 고개를 들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하다 보니 왠지 나와 함께 행진하는 사람들이 같이 싸워주고, 자기 일처럼 생각해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수백 명의 퍼레이드 행렬에 섞여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렸을까.

작년 퀴어 퍼레이드에서 홍석천 씨가 자기는 커밍아웃을 한 덕분에 24시간 동성애자로서 살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엄청 감동했던 기억이 났다. 행렬의 맨 앞에 있는 홍석천 씨와, 사진촬영 금지를 위한 붉은 리본을 매지 않고 당당하게 걸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벽장 속에서 나가려면 멀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건 탄식이라기보다는 언젠가 저 사람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이번 퍼레이드에 함께 참석한 친구들은 같이 'Dyke on Focus(다이크 온 포커스, 줄여서 다이포)'라는 영화제작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퀴어문화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영화제에서 작품이 상영되기도 했는데, 친한 이성애자 친구와 동료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난 후 그 때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 그들

과 얘기해보는 짧은 다큐멘터리다.

원래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건, 미국에 'PFLAG(레즈비언과 게이의 친구들과 부모들)'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시작해 한국의 PFLAG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커밍아웃을 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자, 한국의 PFLAG는 커녕 그들의 말에서 포착되는 광범위한 호모포비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친구라고 믿었다가 그들의 발언에 허거덕 놀라 쓰러진 우리는, 커밍아웃만 해 놓고 친구들 몰 관리(?)를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일단 반성하고 목표를 급 수정했다. 먼 훗날 한국의 PFLAG를 꿈꾸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자고.

작년 퍼레이드 전부터 이 영화를 찍었는데, 꼭 오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퍼레이드 당일에는 대부분 오지 않은 장면도 영화에 들어 있다. 하지만, 비까지 오고 약속했던 친구들이 안 와서 더 꿀꿀해 보이는 작년 퍼레이드는 이제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듯하다. 올해엔 다이포 멤버들의 이성애자 친구들과 동생, 오랫동안 고민하다 처음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해 자신을 드러낸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우리의 축제를 즐겼으니까. 앞으로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친구들과 우리의 개체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는 더 신나게 퍼레이드를 즐길 것이다. 퍼레이드 만만세~!!



들통 ● 드림통의 도량과 단단함을 닦고 싶은 인간 들통. 아웃팅 반사~!!

임신이상근활동에 미치는 영향

나우 ●



임신소식을 알리자 둘째언니는 자기가 꿈 얘기부터 시작했다. 갈치가 펄떡펄떡 뛰길래 잡아서 툭 잘라 갈치초림을 해 먹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태몽이 기이하지도, 멋지지도 않았다. 인터넷 지식인들에게 확인해보니 갈치는 딸 낳는 태몽이란다. 태몽으로 인정하고 나니 갈치라는 말이 어찌나 입에 착 붙던지, 단박에 태몽은 갈치로 지었다.

그런데 얼마 후 엄마가 전화를 걸어 “갈치 꿈은 태몽 아니다” 하신다. 참 뜬금 없고 맥락 없는 부정이었다. 그래서 난 인터넷 지식인을 들먹이며 그것은 반박하기 힘든 무척이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인양 얘기했다. 엄마도 움찔했는지 그저 “갈치 꿈 태몽 아니야~” 메아리를 울리며 전화를 끊고 만다.

엄마는 왜 그렇게 강하게 갈치를 부정했을까. 진실인즉, 나의 탄생 후 서른 해가 지나 엄마의 고해성사가 있었으니 나 역시 태몽이 갈치였단다. 물레방앗간에서 갈치가 튀어 올라 온 꿈이었다나. 딸만 연달아 넷을 낳은 엄마는 딸 낳은 설움을 고스란히 그 딸이 안게 될까 무척이나 노심초사 하고 있는 거였다. 엄마, 걱정 말라구. 내 까칠한 성격만 닮지 않는다면 솔직히 나 같은 딸, 멋지잖아? 크하하.

민우회 상근자들에게도 임신소식을 알리자 축하인사 외에 두 가지 재밌는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 좋겠다! 이제 쉴 수 있잖아. 후!’, 출산휴가조차 그저 쉬는 거려니 부러워하는 걸 보면, 다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지 않나 싶다. 또 하나의 반응은 ‘너 이제 어떡하니!’

나 역시 이 두 가지 감정이 온전히 존재한다. 아이를 낳아 본 사람이야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쉬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경험한 바 없는 나로서는 휴가와 휴직기

간을 합한 1년이 그저 달콤한 휴식기처럼 기대되기만 한다. 또 한편으론, 계획되지 않은 출산에 대한 당혹스러움에 겹쳐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1년 후의 나를 상상할 때면, 아이를 키우며 일 하느라 동분서주하며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 생각만 해도...

그래도, 내가 누군가. 민우회에 들어오자마자 평등한 일·출산·양육 캠페인을 맡아 2년이나 거리에서 '평등하게 나누면 직장도 가정이 양립된다'고 외치던 민우회 상근활동가 아닌가. 그래, 출산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참여하도록 육아휴직을 분담하면 양육도 즐거울 수 있고 양립도 가능할거야. 그래서 내가 법적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나의 배우자가 6개월을 이어받아 갈치를 키우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실, 나의 배우자 역시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고, 무척 즐겁게 내년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을 보아, 양육분담을 하려는 기특한 뜻이라기보다는 '양육휴직은 곧 개인의 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우기가 힘들다. 뭐 어쩌랴, 꺾어보면 자기도 힘든 거 알겠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

임신을 하면서 나의 몸은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었고,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급변했다. 그럴 때에 과중한 업무는 때로 견디기 힘든 경험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문장 하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당해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어찌나 일이 쏟아지던지, 징징거리며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을 울부짖는 적이 있다. 사실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진 않았다(-_-). 그래서 또 혼자 생

각했다. 나의 '경이한 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누군가 내 일을 가져가 줘야한다는 건데,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누가 내 일을 떠맡아준다 한들, 그 마음 불편한 상황이 임신한 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것 같진 않다. 결국 그냥 '내가 하고 말지'로 혼자 마무리한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 내가 노동상담을 하면서, 임신한 여성노동자라면 묻지 않아도 늘 덧붙이던 이 말이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말이었던가도 반성하게 된다. 더 자세히 듣고,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상담을 하자는 기특한 생각까지 든다(눈치 챌겠지만 점점 혼자 칭찬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일에 익숙해지는 건 임신이 상근활동에 미친 지대한 영향 중 하나인 것 같다).

여하튼 점점 부풀어 오르는 내 배가 나도 신기한데, 상근자들도 같이 신기해하고, 나도 아직 갈치랑 말 트기 어색한데 먼저 조금씩 갈치에게 말을 건네던 모습. 내 손발이 통통 부으면 자기 손발이 부은 것처럼 걱정해주고, 불량식품 못 먹게 잔소리 해주고, 후출그레한 임신복을 고수하던 내게 칼라풀한 임신복을 깜짝 선물하는 상근자들을 보면서, 힘든 활동 속에서도 나를 임신은 즐거운 경험이 되곤 했다. 그렇게 민우회 상근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갈치를 맞이하고 축하와 염려, 배려를 받은 지 벌써 8개월째. 이제는 낳고 키우는 것만 남았다! 아, 떨려. 저 건강하게 갈치 낳고, 즐겁게 키우다가 올게요! 

나우 ● 이 글이 실린 '함께가는 여성'도 사무실에서 직접 건네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겠지?
아...그땐 함어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

고정희 기행을 다녀와서

히로 ●

여기 다 모였구나
 이 불꽃이 바로 평등의 불꽃이요
 이 기운이 바로 통일의 기운이요
 이 바람이 바로 해방의 바람 아닐손가
 자매여
 이제는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
 이제는 우리가 밥이고 희망이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고 살림이다

『자매여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 중, 고정희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가방 하나를 달랑 매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지인 신촌으로 향하였다. 여행이 설레였던 탓일까. 가장 먼저 도착하여 버스의 한 켠에 자리를 잡은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씩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정희 시인을 기리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녀와 치열한 시대를 함께했던 동료 페미니스트와 그 바통을 이어온 '영' 페미니스트, 그리고 파릇파릇한 고정희 청소년 문학상 예심 통과자까지. 잠시나마 우리는 펍펍한 현실을 벗어나 고정희 시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이상향인 '곤륜산'의 모습이 담긴 시간을 함께 보내다 왔다.

어느덧 16년째, 매년 6월이 되면 한국 페미니즘 운동과 문학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고정희 시인을 기억하려는 이들은 그녀의 생가가 있는 전남 해남에 모인다. 고정희 시인이 1991년 지리산 등반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처음에는 지인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우정으로 시작한 추모모임이 어느덧 연례행사가 되어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관심과 인파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문단에서도 시인이자 활동가였던 한 여성을 향한 이러한 끈끈한 우정과 정성에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올해 역시 또하나의 문화, 해남 여성의 소리, 하자센터, 전교조, 늘봄 대안학교, 제



고정희생가

주 여민회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커져가는 고정희 시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버스 안에서 함께 허난설헌 관련 영상을 보며 여행은 시작되었다. 고정희 시인의 생가와 묘지를 방문하여 추모제를 올리고, 고찰 미황사에서 지난 고정희 기행 영상을 보고 또 하나의문화 동인의 강좌를 들으며 담소를 나누면서 하루 밤을 보냈다. 다음날 다산초당을 방문하고 바닷길을 걷는 것으로 여행은 마무리 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고정희 기행’은 고인에 대한 추모행사이면서 동시에 기행이라는 독특한 공간적·정신적 경험을 갖게 했다. 추모는 항상 떠나간 이에 대한 슬픔과 과거의 기억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에서는 그녀를 통해 세대, 나이, 소속을 넘어 새로운 문화공간과 소통의 잉태가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그녀의 땅끝마을 고향이 주는 자연적인 편안함과 어우러짐, 여유는 고시인의 방 한 칸에 적혀있던 좌우명 ‘고행, 묵상, 청빈’의 정신과 함께 생태 여성주의의 공간적 경험과 실현을 순간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이번 추모기행을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시대를 초월한 끈끈한 ‘자매애’, 열정과 드라이브로 모인 전국의 ‘다양한 여성’, ‘대안적인 문화공간’, 그리고 ‘생태 여성주의’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여성들이 만나 고인을 기리는 진지하면서도 신명 나는 시간을 만들고, 티끌 하나 없는 자연에서 숨을 쉬고 소통하며 우리가 서 있는 현재와 지나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아닐까 싶었다.

이번 추모기행에 참가하여 고정희 시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다시 되돌아간 그곳을 찾아가 보니 오래 전 서거한 문인 혹은 활동가라기보다 16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친근하고 존경스러운 옆집 언니이자 동료 활동가로 다가온다. 아마도 그녀가 생전에 시를 통해 제기했던 많은 문제가 오늘날 현실에도 적용 가능하고, 그 청렴한 정신과 열정, 진솔함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실되게 전달됐기 때문이 아닐까.

강산이 몇번이나 변했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페미니스트 사이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지점이 있다는 또 하나의문화 동인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떠난 지가 엇그제 같은데...”라며 담배 한 개비와 함께 조용히 울먹이던 그는 세월의 무상함과 더불어 그동안 한국 여성운동이 일구어 놓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고정희 시인도 함께 볼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리라.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물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정치적 리얼리즘이 팽배한 사회공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나ihil적인 시공간에서 소통하고 숨쉴 수 있어 일 분, 일 초가 더없이 값진 시간이었다. 고정희 시인이 이런 나를 그리고 이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위의 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 다 모였구나 이 불꽃이 바로 평등의 불꽃이요 이 바람이 바로 해방의 바람 아님손가 자매여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 라고. **안**

히로 ● 민우회 얘기만 나오면 신버람 나는 신임회원(쓰아쓰애), 유부초밥으로 점심 때우며 청탁글에 볼드 중(?)



잘 늙어가기

이서연 ●

#1

중학생인 우리 딸이 그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시험기간에도 꼭 챙겨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EBS 중학영어? 수학? 그러면 오죽 좋으리라는 그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은 살찔까봐 안 본다. 꽃미남 정일우 오빠가 나오는 '거침없이 하이킥' 을 거침없이 보고는 핸드폰 대기화면에도 정일우 오빠가 살인미소를 거침없이 날리고 있다.

그렇게나 재미난 걸 학원시간과 겹치면 못 보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엄마가 대신 보고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며칠 전 저녁에도 혼자 앉아 문제의 시트콤을 보고 있었다. 등장인물 중 문희 할머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톨톨 뭉쳐있으나 결코 카리스마는 없는 남편 순재 할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푹푹하고 당당한 한의사 며느리 해미의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휘둘리며 억울해 하는 인물이다.

많은 식구들 뒤치다꺼리에 지치고, 푹푹한 며느리, 잘난 척 남편에 상처받아 속상해 하던 어느 날, 문희 할머니는 친구가 다니는 댄스교습소에 구경을 가게 된다.

“아유, 난 그런 거 못해” 하며 시작한 춤이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춤추는 재미에 푹 빠지게 했음은 예상대로였다. 그럼 이어지는 스토리는?

예상대로라면 댄스교습소에서 만난 멋쟁이 할아버지와 살짝 설레는 감정을 나누고 그에 비해 무뚝뚝하고 잘난 척 장자인 남편의 모습이 마구마구 비교되고?

극중 해미가 즐겨 쓰는 말마따나 “Never! Never!” 결코 아니었다. 남자 파트너가 없어 다른 할머니의 남자 파트너 역할을 해주면서 문희는 득도를 하게 된다.

“내가 리드해서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걸 여직 모르고 살았네! 못된 영감뱅이가 시키는 대로, 잘난 척 똥뽀바까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젠 나도 다르게 살 거

야! 내 인생은 내가 리드하겠어!” 뭐 대충 그런 대사였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댄스 교습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음악을 틀어 놓고 상대도 없이 혼자 멋지게 당당하게 배를 쭉 내밀고 춤을 춘다. 이 대목에서 나는 해벌쭉 웃으며 마구 박수를 쳤다. “와야! 짹짹!”

#2

민우회 20년, 생협 18년, 내가 민우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여섯 살이던 우리 딸은 열네 살.

어린 딸에게 붙잡힌 손을 놓을 길도 없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발 동동 구르면서도 동네 아줌마 하나 친구로 변변히 포섭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유폐시켰었다.

그즈음 표류해 들었던 민우회는 내게 구원이기도 했고 애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여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며 좌충우돌 몇 년을 지나다 보니 아이는 커 있고 나와 민우회 친구들은 늙어 있다.

삼십대의 내 화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면 사십대인 지금은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가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 민우회 실버타운 같은 거 만들어서 늙으면 모여 살자”하는 말이 농처럼 나온 것이 몇 년 된 것 같더니 요즘 생협포럼 등의 주제로 노령화 사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니 잘 늙어 가는 것이 나만의 화두는 아닌 것 같다.

요즘 나는 잘 늙어 가기 위해 하는 일이 있다.

첫째는 반겨 주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민우회에 놀러간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골몰해 일만 보일 때는 내가 무차별로 쏘아대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늙어 갈 것인가’로 관심이 옮겨가고 보니 함께 늙어가고픈 친구들이 민우회에 지천이

라, 이사를 해서 집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둘째는 플룻 소모임에서 평생 처음으로 악기를 배운다. 어릴 때 피아노도 배워 본 적 없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던 적도 없으며, 배울 수 있다고 엄두를 내본 적도 없었던지라 꽤나 뜬금없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플룻을 지도해 주시는 장선생님이 교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발표회다, 연주회다 명석까지 잘 아주시는데, 10년, 15년씩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너무 부러워 보였던 거다.

그동안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던 간에 배우는 것으로 끝나 버렸기에 더 이상 뭘 배우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는데, 이 그룹에는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예술 살이 되어서도 드레스 입고 플룻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젓밥에 욕심이야?- 생각이 들었다.

“서연씨, 입으로 폭탄 던져요?”

“서연씨, 그런 공사판 막노동꾼 같은 소리 말고...”

선생님이 구박을 하거나 말거나 꾀꾀하게 플룻을 배운 지 벌써 열 달이 되어 간다.

민우회 친구들아! 내가 할머니 돼서 드레스 입고 연주회하면 꽃 사갖고 올 거지? **▶**

이서연 ● 차분차분한 말을 듣고 싶노라면 숨기쁜 일상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동북지방의 플룻 소모임 ‘여름숲 앙상블’에서 일명 티프너로 불린다.

● 생협에선 고령화를 준비하는 생협포럼을 매달 셋째 목요일마다 지역으로 찾아가며 계속하고 있어요. 7월엔 동북에서, 8월엔 남서여성민우회 생협에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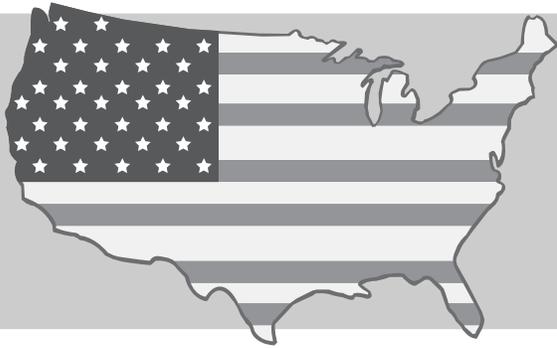
‘미국사회포럼’에서 울려 퍼진 여성노동자의 함성, “해가 뜨면, 우리는 일어나리라!”

박혜정 ●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5박 6일 동안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첫 번째 ‘미국사회포럼(US Social Forum)’이 열렸다. 미국 전국 각지와 국외에서 만삼천명이 참가하였고, 9백여 개의 본 워크샵과 영화 상영, 문화공연, 천막 안 토론 등의 부대행사가 잇따랐다. 이번 행사는 미국 내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진보운동 관련 행사들이 백인 남성 운동권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행사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풀뿌리 단체들이 주축이 된 전국 행사였다. 이 행사의 준비위원회는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모임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2003년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행사 자체만을 볼 때는 1, 2년 안에 준비하고 마칠 수 있었겠지만, 준비위원회는 4년간 행사준비에 품을 들였다.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중시하여 그 자체를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수많은 단체 및 개인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방대한 행사를 추진한 것이다. 행사의 모든 참가자들은 45개의 풀뿌리 단체로 구성된 전국준비위원회에 큰 박수를 보냈다. 준비위원회의 세심함은 첫 날 아틀란타 시내를 가로지르는 행진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행진의 맨 앞줄에는 장애인,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 뒤로는 미국의 원주민, 그 외

각종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일하는 유색인종, 풀뿌리 단체들이 그 뒤를 따랐다. 굼직한 단체의 원로 대표자들이 맨 앞줄에서 현수막을 들고 앞장서는 한국과 미국 진보운동권의 관례(?)와는 영 달랐다. 소수자, 약자를 앞세우는 ‘새로운 운동문화’라 할 수 있겠다. ‘핫틀란타(Hotlanta)’라고 불릴 정도로 따가운 피약별이 내리찍는 아틀란타의 거리를 참가자들은 흥겨운 노래와 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구호를 제창하며 두어 시간 걸었다. 물론 선두에 선 장애인들의 속도에 맞춘 행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 미국에서 일 년 넘게 한미FTA 반대투쟁에 관여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민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더욱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터라,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공유되는 몇몇 워크샵에 집중적으로 참여했다. 행사 이틀째에 열린 ‘군사주의, 이민노동, 신자유주의’라는 거창한 제목의 워크샵이 열리는 방을 기웃거리다가 50여명의 참가자들의 시선이 자그마한 체구의 60대 멕시코 출신 이민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키랑카랑한 목소리로 서반어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투쟁을 열심히 설명하는 비올라 카사레스(Viola Casares) 할머니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 자리를 잡고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도 젊은 층에게 인기가 좋은 유명 브랜드 리바이스(Levi's)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을 통해 리바이스의 노동자 착취와 폐업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온 비올라 카사레스 할머니와 페트라 마타(Petra Mata)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할까 한다. 이 두분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산안토니오에 소재한 리바이스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이민 여성노동자이다. 함께 일자리를 잃고 영어로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계 여성들과 함께 '후에르자 우니다 (Fuerza Unida, 단결된 힘)'라는 단체를 만들어 17년 동안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 두 사람은 지금도 이 단체를 이끌며 저소득층 여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1990년 1월 17일 리바이스 회사는 산안토니오 공장을 다른 저임금 국가인 코스타리카로 옮긴다며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폐업 공지 시간을 준 채, 1,150명의 노동자들을 모두 거리로 내쫓았다. 30년, 40년 근속하고, 85%가 멕시코계 미국 이민 여성이었던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이어야 할지 몰라 울고 소리치다가 지쳐서 기절하기도 했다. 리바이스는 1990년까지 미국 내 58개의 공장문을 닫아 10,400명의 일

자리를 앗아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착취와 해고를 일삼았다. 비올라와 페트라 할머니는 곧 2월 12일 '후에르자 우니다'를 조직하여 700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함께 리바이스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6학년이 최종학력으로 배운 것도 없고 재봉사로 혼자 네 명의 어린자식을 키우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비올라 할머니는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끓어올라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후에르자 우니다'는 1990년 4월 한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리바이스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였고 2년 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폐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리바이스 노동자들을 투쟁



후에르자 우니다 포스터



페트라 마타와 비올라 카사레스(왼쪽부터)

UNITED STATES SOCIAL FORUM

ANOTHER WORLD IS POSSIBLE ★ ANOTHER U.S. IS NECESSARY ★ JUNE 27-JULY 1, 2007, ATLANTA GEORGIA ①



- ① 2007년 USSF
- ② 후에르자 우니다

에 동참시켰다. 또 폐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노동자들을 미리 조직하여 폐업을 막기도 했다. 비올라와 페트라씨는 노동자들이 초청하면 어느 곳이나 방문을 하여 교육을 하였다. 리바이스의 정체를 밝히는 기사 보도문을 널리 보내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퇴직자, 소비자들을 그들의 편으로 만들어 갔다.

결국 7년 후인 1997년 리바이스는 폐업 8개월 전 사전 공지, 퇴직 후 18개월의 연장된 의료혜택 제공, 6,000달러의 재교육 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노동자의 퇴직 정책을 발표했다. 비록 산안토니오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혜택은 없었으나, '후에르자 우니다'의 투쟁은 다른 리바이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향상시켰고, 미국의 노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가정과 공장일밖에 몰랐던 비올라와 페트라씨는 리바이스 투쟁을 통해 사회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지역사회의 호텔 노동자, 철강회사 노동자들이 겪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지금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FTA 반대투쟁에 앞장서는 산증인이 되었다.

현재 '후에르자 우니다'는 여성노동자들과 이민여성들의 공동체로서 그들 가족과 지역사회의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단체는 행사음식 판매, 재봉 창작품인 옷과 탁자보 판매, 빙고게임 수익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여 왔으며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비올라 할머니.

그녀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주름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거기에는 지난 17년간의 투쟁 기간 동안 흘린 눈물과 승리의 웃음이 비껴 있었다.

그날의 워크숍 이후에도 나머지 사흘 동안 이민노동자에 대한 워크숍 방에 들어설 때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 비올라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몇 번의 만남에서 서로 낮이 익어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혹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를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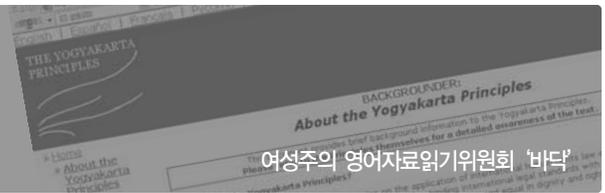
"한국의 여성노동자 여러분! 당신들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팔과 손으로 당신들을 감싸 안으며 당신들을 느끼고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투쟁이지만 해가 떠오르는 한 우리는 모두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가끔 소리쳐 울기도 하지만, 우리는 해가 뜨면 늘 다시 일어납니다."

행사 마지막 날 나는 할머니에게 언젠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과 '후에르자 우니다'를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깊이 새기고 '핫틀란타'를 떠났다. 언젠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안**

박혜정 ● '82년 도미하여 재미동포운동단체와 풀뿌리 영상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 펀딩익스체인지(Funding Exchange)라는 진보재단에서 미디어정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요가카르타 원칙이란?

<http://www.yogyakartaprinciples.org>



여성주의 영어자료읽기위원회 '바닥'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요가카르타에 있는 가드자흐마다 대학 세미나에서 법률, 학계, 인권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배경을 가진 저명한 인권 전문가 그룹이 이른바 요가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라 불리는 원칙을 채택한다.

정식 명칭은 '성적지향과 정체체성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요가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이다.

요가카르타 원칙은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지적하며, 국가의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과 구체적인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 요가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

- 인권의 절대성과 모든이에게 차별없이 적용됨을 법앞에서 인정하는 만인의 권리
- 생존권, 폭력과 고문받지 않을 자유, 프라이버시, 재판접근권, 임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자유
- 고용, 편익시설, 사회보장, 교육과 건강을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것
-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국가의 간섭 없이 자기 자신, 자신의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자유

- (정치사회적)운동에 대해 자유로운 권리와 피난처를 찾을 권리로 성적지향이나 정체체성을 이유로 한 학대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권리
- 가족구성, 공공생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로 성적지향이나 정체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들 공동체의 가족생활, 공무(public affairs), 문화생활에 참여할 인간의 권리
- 성적지향과 정체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런 영역에서 인권 옹호자의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권리침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침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과 충분한 배상을 보증하는 것의 중요성

지난 5월 22일 법무부가 최종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다. 2월에 발표한 초안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부문에서 성소수자를 병력자와 같은 항목에서 다뤄 성적체성의 차이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에서도 역시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라는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제적 기준으로 삼았던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외에 요가카르타 원칙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인권실태와 관련 법령, 인권보장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을 했다 라면 좋았을 거란 아쉬운 생각을 해본다. **업**

1) NAP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올해(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월에 확정된 NAP를 토대로 각종 정책을 이행하게 되며 매년 말 이행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아이들

오정희 「유년의 딸」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의 누에

요즘엔 해가 깊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영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방 놓고 나와 학원 가는 길에도 아직 해가 짙은 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양떼구름이 줄지어 종종중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앗, 재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저렇게 가볍고 즐거운 몸짓으로 어디로 산책을 가나 보다. 부러워라.

그나마 하늘을 올려다 볼 정신머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하늘과 구름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라도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화색빛 아스팔트만 쳐다보며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하늘이 무엇인지는 과학시간에나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슬픔니다.

앗, 너무 멀리 왔네요. 오늘 저는 우리 모람에서 함께 읽은 오정희님의 단편 '유년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유년의 딸'은 한국전쟁 시절 참 힘들게 살아가는 한 피난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노랑눈이네 집에서는 어머니가 가장입니다. 저녁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어떤 일을 하며 돈을 벌며 오고, 오빠는 이런 어머니가 늦도록 들어오지 않아 기분이 나쁜 날이면 언니를 때립니다. 할머니는 잘 자라지 않는 막내 손주를 업어 키우며 그럭저럭 집안을 돌봅니다. 노랑눈이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이웃인 주인집 딸 부네는 작은 방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죽은 부네는 지푸라기 인형이 되어 영혼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 노랑눈이는 똥똥합니다. 곁에 정다운 사람 하나 없는 노랑눈이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듯 먹고, 또 먹습니다. 할머니가 동네에서 몰래 잡아다 삶아 준 닭을 배부르게 먹은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연신 우물물을 떠 마시던 노랑눈이는 '고요하고 알 수 없

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우물 속을 들여다봅니다. 가난하고 어리기에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항상 묵묵한 이 아이가 우물에서 들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요즘의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글썽요, 전쟁과 입시지옥, 이 둘을 함께 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겠지요. 하지만, 전쟁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 전에 그 안에서 힘들게 버티고 내고 있는 어린 노랑눈이를 보며 아픈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영어가 멋들어지게 쓰인 동화책을 선물 받는 조카 선영이를 보며 씁쓸했던 마음과 참 비슷했습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1950년대의 노랑눈이는 한창 즐겁게 뛰어놀 나이에 말없이 우울한 가족과 이웃의 모습이나 지켜보며 무거운 몸으로 힘들게 움직이고, 2000년대의 선영이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왜 배우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에 놀려 피곤해 해야 하는 걸까요?

'유년의 딸'은 슬픈 전쟁의 시대를 지나가는 피난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꾸 노랑눈이가 눈에 밟힙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던 날, 훔쳐 먹은 케이크를 토하며 들여다 본 똥똥 속에서 노랑눈이는 또다시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적응해야 할 새롭지만 희망 없는 삶, 그 앞에서 노랑눈이는 크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계속 버티기엔 너무 지쳤다고 말입니다. **앎**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

앞서 세계의 여성, 문학을 만나는 모임. 귀찮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소설에 대한 애정은 많음. 이번 책은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http://womenlink.or.kr/moram/>에서 세여소를 찾으세요.

2007년 '멋진 페미니스트 되기 프로젝트' 제2차 새모람을 소개합니다~!!

이번 새모람은 무척이나 열정적인 토론으로 유명합니다. 주변에서 아근하던 상근활동가들의 귀를 쫓긋하게 했던 수다파워레인저~!! 그 주인공들을 만나 볼까요?

Q 나를 소개 하면~

- ① 이름 · 별칭, 별칭에 대한 간략한 소개
- ② 지금 나의 '뇌'에는 이런 생각들이 움지락~
- ③ 나에게 새 모람은 _____ 다



이정화

- ① **이정화** 별칭사용보다는 있는 지금 현재의 나로 만족한다.
- ② 맛있는 거, 지방, 다이어트,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똥담화, 수다, 잘난 척 하는 것, 사기치는 것 등
- ③ **방향** 사무실이 민우회 근처인 관계로 모임 시작 전까지 서대문 근처를 배회하기 때문에



길가메시

- ① **길가메시**
- ② 진로고민, 정의실현, 남편과 딸과 오순도순 살 생각, 남편의 진로에 따른 외국어 스펙, 종교, 책, 섹스, 놀고 싶은 것, 환경문제, 외모, 운동



파란

- ① **파란** 새모람에서 연상게임을 통해 만들어진 별칭
- ② 헤어졌으나 헤어진 것 같지 않은 애인과의 관계가 지금은 아주 많은 부분을 메우고 있고, 취업과 앞으로의 진로, 심리상담, 가족격정과 생각,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생각, 다이아트, 내 미니홈피 · 이메일에 누가 다녀갔을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원활동 생각
- ③ 아쉬움이다. 끝까지 함께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제일 남기 때문에



발리

- ① **발리** 자유 Valerino+가치 livereto 에스페란토어 합성어예요.
- ② 기본적으로 나의 대뇌피질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은 '행복하게 살기' 그리고 그 안에는 진로고민, 나답게 살기 그러나 다르게 살기, 애인, 가족, 생존의 문제 - 어떻게 벌고, 쓸 것인가, 외국, 공부
- ③ 기다림?! 너무 식상하기는 하나 너무 정확^^



자갈돌

- ① **자갈돌** 물이 있는 곳에 다 있는 자갈돌은 물을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아무데서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자갈돌처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별칭을 쓴다.
- ②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돈 벌 궁리, 재테크, 애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남편, 6살 딸, 고2의 딸, 친정식구, 고모 등 가족생각, 취미생활인 운동, 쇼핑, 외모,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공부
- ③ 자유의 시간



고양여성민우회

마당극 모임

우리의 재미난 일상과 분주히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들의 몸짓과 목소리로 만들어 이야기극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노래도 소리도 몸짓도 함께 배웁니다. 배워서 나누고 풀 어내고 싶은 회원 환영합니다.

- 일시 : 관심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조미임 (010-7591-2320)

랄랄라 민우학교

민우생협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랄랄라 민우학교가 열립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연을 만지고 느끼는 친환경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프로그램
 - 만화교실(2회) : 좋아하는 만화 컷 그리기 완성
 - 식생활교실(3회) : 우리 몸은 식품첨가물을 싫어해
 - 목공교실(2회) : 가족메모판 만들기
 - 박물관교실(1회) :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온 박물관에서 만나요
 - 심학산 숲교실(1회) : 심학산에서 여름을 만나요, 목걸이랑 솥대도 만들어요.
 - 일기쓰기교실(4회) : 생활글 · 마음글 자연스럽게 써보아요.
- 일시 : 8월 6일~22일
- 문의 : 생협사무국 (031-918-9774)

초경&몽정파티

- 프로그램 : 멋지게 찰칵, 도전 사춘기 벨, 여성주의 자기방어
- 일시 : 초경파티 8월 20~21일
몽정파티 8월 22~23일
- 대상 : 초등 5·6학년 학생과 부모님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 교육장

자기성장프로그램

폭력피해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집단프로그램과 심신회복캠프로 이루어져 내면의 힘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집단프로그램 : 9월 18일~11월 29일(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9시) 분노조절과 자기표현법, 의사소통 훈련, 미술치료, 춤 세라피, 나의 몸 나의 성을 만나다, 심리극 등
- 심신회복 프로그램 : 마음을 여는 여행 (9월 27일부터 1박2일)
- 회비 : 무료
- 문의 : 031-907-1003

광주여성민우회

여성역사해설사 양성교육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여성인물을 발굴합니다. 여성과 문화에 관심있는 여러분 다~모여주세요~!^^*

- 일시 : 8월 14일(화), 총 7강(2회 현장실습)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한부모가족 공동체 '구르uter기' 모임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 가족!

- 일시 : 8월 30일(목)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상담원 수퍼비전

상근활동가 및 자원상담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수퍼비전 나누기

- 일시 : 9월 5일(수)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회원 몸다지기 운동회 (민우 운동회)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회를 엽니다! 선물도 풍성, 재미도 풍성한 여성들의 놀이의 장에 함께해요!

- 일시 : 9월중

한부모가족 명절 한마당

- 내용 : 명절 음식 만들기 및 전통놀이
- 일시 : 9월중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군포여성민우회

십대의 성

시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 자신도 성교육 제대로 받아 보고 싶은 분, 십대 대상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 모두 모여 속 시원한 성교육을 만들어 봐요.

- 일정 : 7월 13일~8월 31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 참가비 : 1만원(회원 무료)
- 참가신청 : 031-396-0236

청소년 영어 연극동아리

- 대상 : 초등4~중1학년
- 일시 : 7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2~4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 동화 읽기 모임

- 읽을책 :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The Wizard of Oz
- 일시 : 7월 24일~9월 11일 매주 화요일 10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

또래 성교육

사춘기라는 여행을 즐겁게 준비하자!

- 대상 : 초등 4~6학년
- 일시 : 8월 9일, 13일, 16일, 20일 10시
- 장소 : 군포 여성민우회 교육장

서울남부여성민우회

남부여성민우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합니다

개포초등학교 뒤쪽 개포4단지 아파트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개포4단지 426동 108호입니다. 놀러 오세요~!

생산지 기행 - 팔당으로 소풍가자!!

- 일시 및 장소 : 9월 8일, 팔당생산지

2007년 남부민우여성학교

- 제 1강 자녀와의 의사소통 훈련
- 일시 : 9월 6일 오전10시30분
- 강사 :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 장소 : 공신빌딩 6층(목양교회 교육실)
- 제2강 신나게 살자

- 일시 : 9월 13일 오전10시30분
- 강사 : 박어진(한겨레 칼럼니스트)
- 장소 : 공신빌딩 6층(목양교회 교육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방과후 공부방 개소

7월 2일 방과후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후 2시~6시
- 장소 : 남서여성민우회

민주어린이 학교 - 문화탐방

- 일시 및 장소 : 8월 중, 미정

민주여성학교

- 내용 및 일시 : 대중매체와 여성, 9월~10월 예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자전거 모임 '위풍당당'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도 서로 나누고, 중랑천가를 달리면서 중랑천 환경생태도 살펴봅니다. 더불어 자동차 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찾을 예정입니다.

- 일시 : 매월 1, 3주 토요일 오전 9시
- 장소 : 중랑천 창동교 아래에서

<애니어그램> 집단 프로그램 시작

애니어그램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내 안의 나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 일시 : 매주 화요일 (2시간), 총 8회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정회원 만남의 날

정회원들이 모여 지난 시간 동안 민우회 활동을 함께 이야기하고, 남은 2007년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정회원이면 누구나 모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일시 : 9월 2일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9월 조합원의 만남의 날

내용 : 스트레스 관리법, 옛돌박물관 여행, 재활용 코사지 만들기, 식품첨가물에 대한 공부 등

- 일시 : 9월 19일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 문의 : 생협 사무국 (02-3942-7140)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적 소통 능력 키우기

심화 워크샵

7월의 1차 워크샵을 통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소통 방법을 배웠습니다. 2차 심화 워크샵에서는 해결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익히는 시간입니다.

- 일시 : 9월 14일~15일 (1박 2일)
- 장소 : 봉도 청소년 수련원

원주여성민우회

여성학공부모임

- 내용 : 쉽게 배우는 여성학
- 일시 : 8월중
-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교육장

면생리대 만들기 강좌

- 일시 : 8~9월
-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교육장

찾아가는 성교육 - 내 몸의 주인은 나

- 일시 : 9월중
- 장소 : 관내 중학교

인천여성민우회

소중한 나, 우리

만남과 성장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 1회 - '나는 누구인가' 즉흥놀이
- 2회 - '가족 안에서의 나' 상황연기
- 3회 - '학교 안에서의 나' 상황연기
- 4회 - '나, 세상의 중심' 독백
- 일시 : 8월 25일~8월 26일
- 장소 : 영화공간주안

공부방 일일 캠프

- 내용 : 요리체험 및 물놀이
- 일시 : 8월중
- 장소 : 서곶 수영장

월경페스티벌 '막힘과트임' 퍼포먼스

- 주제 : 소녀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 일시 : 8월 31~9월 1일
- 장소 : 인사동 썬지길, 흥대앞 걷고 싶은 거리

시민단체활동가의 날

인천지역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행사로 애니어그램 및 성교육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 8월 31일~9월 1일

한부모가족 임파워먼트를 위한 설문조사

- 내용 : 설문조사자 교육, 설문조사, 설문분석
- 일시 : 8월~9월

평등한 일, 출산, 양육을 위한 캠페인

- 일시 : 9월 7일~8일
- 장소 : 부평시장, 부평공원

회원의 날

- 일시 : 9월 14일(금)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수요집회 주관

민우회가 수요집회의 전체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고,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9월 19일(수)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여성태교교육

- 일시 : 9월내 주2회씩 교육 예정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진주여성민우회

창립10주년 기념사업 사무실 이전

- 일시 : 2007년 8월 말 예정
- 장소 : 평거동 진주문고 후문 300m 전방

해이해아공부방 여름방학캠프

- 일정 : 8월 8일(수)~8월 9일(목)
- 장소 : 대아골 학생수련원
- 내용 : 전공협 여름캠프

통일한마당

- 일시 : 8월 10일(금)
- 장소 : 청소년수련관
- 내용 : 통일한마당 기념행사

강의날 부스운영

- 일시 및 장소 : 8월 16(목)~18(토), 남강고수부지
- 내용 : 강의날 기념 행사 중 단체홍보및 생활재홍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연수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8월 25일(토), 미정

생협강좌

- 일시 및 장소 : 9월 11일(화), 미정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회 진주협의회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9월 19일(수), 청소년수련관
- 내용 : 진주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기반으로 각 분야별로 진주인권 현황을 발제하고 토론

춘천여성민우회

민우어린이 인권캠프 – 꿈꾸는 달팽이

어린이 인권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어린이 캠프입니다.

- 일시 : 8월 2일~3일
- 장소 : 강촌 반딧불이야기

삼색모람

- 내용 : 8월 - 손수건천연염색, 9월 - 친환경발효세제EM만들기

- 일시 : 8월 14일(화), 9월11일(화)
- 장소 : 춘천여성민우회 사무국

들팔 나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기행. 8월은 곰배령에서 우리 들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 일시 : 8월 25일(토)
- 장소 : 강원도 인제 곰배령

자매들의 벼룩시장

아껴쓰고 나눠쓰는 민우회 환경장터

- 일시 : 9월 8일(토) 오전11시(예정)
- 장소 : GS마트 건너편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생활속의 친환경 여성운동 - 기꺼이 불편해지기를 홍보하고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 일시 : 9월 추석명절 이전 (예정)
- 장소 : 춘천 명동 일대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ool@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어라 민우회! 민우회원 생활백서

사랑은
회원이 사랑하기!

- ①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 ② 민우회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다.
- ③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랑~짝 회비를 올린다.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유정 김경례 나애자 박선화 권미희 문지현 권혜영 천성임
전선화 김수행 박미란 이명희 임은주 김동숙 김미옥 김진선
민영재 이미실 이종희 장옥희 김애경 오민숙 김윤정 최형석
권택준 이정미 배은숙 이은정 박미경 김진경 유국균 노선애
정미혜 김경옥 하정희 최미경 김정미 김영녀 이지수 정유경
홍정륜 김미영 양서영 손정희 임숙희 장은혜 정담빈 김호경
정영순 김해숙 장성주 강수분 문은미 채선화 전미숙 심민지
손경옥 유남이 윤영미 정현진 이진숙 정신애 김윤희 채종렬
안혜영 구현정 김용미 오세은

(2007년 5월 24일~7월 25일)

'회원의 밤'

민우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민우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민우 식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회원의 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공지합니다. 잊지말고 기다려 주세요!!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성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날들이 스무해가 되었습니다.
 스무살 민우회는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이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꿈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민우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 길을 여는 사람들

- 나눔세상 길잡이 : 10만원 이상 후원
- 웃음세상 길잡이 : 100만원 이상 후원
- 평화세상 길잡이 : 30만원 이상 후원
- 행복세상 길잡이 : 300만원 이상 후원
- 평등세상 길잡이 : 50만원 이상 후원
- 희망세상 길잡이 : 500만원 이상 후원

※ '길을 여는 사람' 이 되시면 원하는 사진이
 새겨진 '희망조각' 을 드립니다.



후원신청 : 02-737-5763 <http://20.womenlink.or.kr>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3-25-0011-869 (한국여성민우회)
 우리은행 064-121846-13-403 (한국여성민우회)
 농 협 085-01-106544 (한국여성민우회)

※ 이 후원금은 여성운동과 민우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회원문의 02-737-6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887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 02-739-8871 상담 02-739-1366~7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팩스 02-3411-3519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매장 02-2643-606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02-3492-7140 생협매장 02-3492-9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매장 031-919-1774 상담 031-919-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상담(노동) 033-254-2155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e@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